朝鮮日報
夕刊
九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本社定期刊行物◆
少年朝鮮日報(日曜附錄)
朝鮮『朝光』(月一回發行)
同『女性』(同上)
同『少年』(同上)

漢陽タクシー
京城 鍾路一丁目
電話(光)二〇〇二·二〇〇三番

日中兩軍의衝突後報

今後엔外交交涉
兩軍撤退交涉成立
事件은無事終結?

【東京電話同盟】九日午前四時 陸軍省着電에依하면 天津市長張自忠氏의 斡旋의結果 中國側은 日本側의要求를容하야 蘆溝橋에잇는 部隊를 永定河右岸南側으로 撤退하고 日本側은 同河의左岸 鐵道의 北側蘆溝橋의 東方으로 一齊히 撤退하기로 交涉이成立되여 午前五時(日本時間午前六時)를 期하야 實行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增援部隊는各其 背後에두고 部隊를 撤退한後 外交交涉에 옴기게되엿다

【北平九日發同盟】冀察側代表張允榮氏는 九日午前一時 松井特務機關長을訪問하고 約二時間동안 蘆溝橋事件의 解決에對하야 折衝한結果 雙方의意見은 完全히 一致되엇스므로 兩軍事當局은 即時 各其第一線部隊에對하야 射擊停止命令을 내리엿다 이로써 一晝夜에亘한 戰鬪狀態는 午前五時(日本時間午前六時)에 이르러 全然解消되여 日本軍은 永定河의 左岸平漢線의 東北地區에 集結하고 宛平縣城을 爲始하야 蘆溝橋附近에잇는 中國軍은 느저도 午前九時頃까지에는 永定河右岸으로 撤退를 完了하기로되엿다 中國軍의 撤退를 監視키爲하야 日本軍側으로부터 中島冀察軍事顧問 中國側으로부터 冀察外交委員會專員林耕兩氏가 現地에 出張할터이다 中國軍의 撤退를待하여 徐徐히 今回事件도 終熄을 告하게될것이다

協定時間까지 撤退完了無可望
北中學生間抗日氣勢

【北平九日發同盟】松井、張允榮 停戰協定에依한 宛平縣城內外及 蘆溝橋附近에잇는 中國軍의 永定河右岸 撤退期限은 九日午前 九時로 되엿는데 午前七時現地에到着한 中國側調査員에 依하야 비로소 撤退命令이 傳達된狀態로 期限時間까지에는 撤退가 完了될 豫測이업서 이러한狀態로는 撤退完了는 正午頃으로 될는것이 아닌가 觀測됨으로 日本軍은蘆溝橋附近에 集結하야 監視를繼續中이다

【東京電話同盟】九日午前確實한 側에到着한 情報에依하면蘆溝橋事件을契機로하야 北中學生間에는抗日運動이 再次激化하야 燕京大學學生 約五百名은 北平各大學生救國聯合會 指導下에 八日午後一時부터 學校內에 集合하야 學生大會를 열고

一、即時對日宣戰
一、屈辱妥協反對
一、即時人民戰線結成

의 三決議를하고 抗日氣勢를올리엿는데 이傾向은 더욱 漸次 各大學에 波及할것이라고하야 매우 注目된다

上海中國人動搖?

【上海九日發同盟】蘆溝橋事件發生에依한 北中時局의 緊張은中國各地에 重大한 影響을 주엇는데 特히 上海中國人은 漸次動搖하는 徵兆가 보임으로 工部局에서는 萬一을念慮하야 八日부터 在留日本人이 密集한地域인 虹口方面에 特別警戒를하게되엿다 또 日本陸戰隊當局及 佛租界警察도 萬全을 期코저 嚴重警戒하는中이다

閣議決定

蘆溝橋事件處理에 關한 臨時閣議는 全閣僚出席하야 九日午前八時五十分부터 閣議를열고 陸軍大臣으로부터 事件經過 및 事態豫測에 對하야 詳細한 說明이잇슨後 그處理方針을 左와如히 決定하엿다

一、今次事件의 原因은 全然中國側의 不法行爲에 基한것
一、日本側으로서는 事件不擴大의 方針을 堅持할것
一、中國側의 反省에 依하야 事態의 圓滿收拾을 希望할것
一、萬若 中國側이 反省치안허 危機發展할 事態를 招來함에 이르다면 日本側은 適切迅速히 機宜의 處置를講究할것
一、各閣僚는 어느때에라도 臨時閣議의 招集에應할수잇도록 待機할것

朝鮮軍聲明

今次蘆溝橋事件의 原因은 全然 中國側의 不法行爲에 잇다 그런故로 萬若 中國軍이 眞實로 그非違를 反省치안는以上 日本軍은 斷乎한決意로써 이를膺懲함은 再言할必要조차 업다 朝鮮軍은 本事件의 誘因이 그根抵가 자못 기픈바잇스므로 歸趨如何에 深甚한 注意를하고 萬般의準備를가추워잇다

天津駐屯軍司令部發表

【天津九日發同盟】九日午前五時 日中兩軍對峙의 姿勢는 드듸여 夜襲을 開始한模樣으로 九日午前一時半頃부터 小銃、機關銃、迫擊砲等의 炸音이 끄님업시 暗夜의空中에 殷殷히 들리어와서 戰鬪는 徹宵繼續되고잇다

【北平九日發同盟】蘆溝橋事件이 重大發展化함에鑑하야 馮治安、秦德純、張自忠其他二十九軍最高首腦部는 八日夜 秦德純氏邸에 集合하야 徹宵對策을 協議中인바 事件發生部隊의 所屬長官인 馮氏는 頗히 强硬意見을가지고잇슴으로 首腦部意見은 여기에끌리는模樣이어서 中國側의 態度는 豫想以上으로 今後事件의解決이 容易치못하다고보인다

【東京電話同盟】陸軍中央部는北中의情勢에鑑하야 京都以西의○○師團에 七月一日의除隊를 延期할目으로 八日深更所定의 手續을經하야 當該師團에게 各各訓令命令을 傳達하엿다 【以上號外再錄】

汪精衛氏歸京

【南京九日發同盟】廬山에 잇는 蔣介石氏는 現地報告에 依하야 事態를 極度로重視하고 汪精衛氏를 南京에急派시켜 國民政府의意向을 모어가지고 日本側과 折衝하야 事態의 收拾에 當하게하엿는데 汪氏는 九日早朝廬山으로부터 南京에 飛來하야 即時 在京要人會議를 召集하고 緊急對策을 講究하게되엿다

朝鮮軍待機!

中國北平附近에서 勃發한 日中兩軍의 衝突의報를 듯고 朝鮮軍司令部에서는 時機緊張하야 連日連夜로 情報의 蒐集에 奔忙中인데 八日以來小林參謀長以下朝鮮軍參謀와 第二十師團齋藤參謀와 總督府藤村御用掛等은 參集하야 鳩首密議하고잇는데 朝鮮軍으로서는 萬般의準備가 整頓되여잇스므로 中央으로부터命令一下면 언제라도 主要部隊를出動할수잇도록待機中이라한다

川越大使北中向發

【上海八日發同盟】八日早朝의 蘆溝橋事件의 報에 接한 川越大使는 北中出發에對하야 考慮中이든바 斷然豫定대로 北中에赴하기로 決定하고 八日午後二時上海出帆의 奉天丸으로 靑島를經由하야 風雲이 急迫한 北中으로向하엿다

對峙中日中兩軍 全面으로衝突!
中國軍態度意外强硬

까지 判明된 日本側損害는 戰死下士官三名 [illegible] 曹長 [illegible] 名 計十名 [illegible] 少尉 野地伊七 [illegible] 兵十七名 合計二十名 [illegible] 數三十名이다 그리고中國軍의損害는 百七八名이라한다

朝陽門閉塞
日本兵通行阻止

【北平八日發同盟】北平東側의城門 朝陽門은 八日朝來 城門을 굿게닷고 마럿기때문에 通州方面으로부터 入城하는 日本軍部隊는 北平으로 드러가지못하고 城門外에서 오도가도 못하게되엿다 日本側의 開門要求에對하야 北平市長 秦德純氏는 冀察當局의 許可가업는限 絶對로開門할수업다고 不應하야 日本軍部隊의 通行을 阻止하는態度를 取하엿다

宋氏에即時歸任要請

【北平八日發同盟】蘆溝橋事件에 關하야 冀察當局은 即時山東省樂陵에잇는 宋哲元氏에對하야 即時歸任하도록 事件發生을 報告하고 事件擴大하지안토록 善處하라고 電命하엿슬뿐으로 自身의歸任에對하야는 아무것도말하지안헛다

撤退하는日本軍에 中國軍不法砲擊
撤退交涉次 中島中佐等 現地로急行

【北平九日發同盟】日中兩軍撤退對峙中止에關한 松井、張允榮協定에基하야 第一線部隊에 射擊中止를 各其 命令하엿는데 日本軍은 協定을實行키爲하야 九日未明 永定河左岸地區에 撤退를 開始하엿다 그런데 中國軍은 命令이 徹底치못하야 日本軍撤退完了後에도 永定河 左岸地區로부터 撤退를開始치안코 오히려 日本軍의 撤退에際하야 射擊을 加하는 暴擧를取하엿기때문에 再次戰鬪가 開始되어 午前六時頃부터 雙方이 다시砲火를 交하는事態를이르키여 協定實行에 當하야 重大한 齟齬를招來하게되엿다

【東京電話同盟】午前十時陸軍省着電…第二十九軍顧問中島中佐及張自忠第三十八師長麾下의 參謀는 九日午前五時四十分北平發同六時半 蘆溝橋로行하야 日本側과 協議한後 撤退를 交涉코저 現地로 赴하엿다

國府緊急會議서 對策三項을決定

【南京八日發同盟】當地中國側官憲에드러온 廬山으로부터의 報道에依하면 蘆溝橋事件에對하야 宋哲元氏로부터 詳細한 報告를 接하엿스므로 蔣介石氏는 八日午後二時 中央政治委員會主席汪精衛、外交部長王寵惠、參謀總長程潛等三氏를 招致하야 緊急會議를열고 여러가지對策을 協議한結果 左의 三項을決定하엿다

一、宋哲元氏에對하야 事件의擴大防止를거듭訓令할것
一、日本軍에對하야 即時軍事行動의停止를 要求할것
一、和平手段으로 圓滿解決을圖할것

在廬山 蔣介石의 國民政府要人會議는 日中兩軍衝突에 影響하고잇는데 [illegible] 이아직 判明치안코잇스므로 積極的態度를 取하며 本事件에 對한公式的 態度를 決定하야 [illegible] 方針이라고觀測된다

人事·集會

▲[illegible]陸氏(江原道警務課長)新任人事次來社
▲有賀光豐氏(殖銀頭取)十日午前十一時五分發列車로渡東
▲[illegible]二氏(朝鮮세멘트會社社長)海州工場의落成을機會로入京中人事次來社
▲中安[illegible]一氏(同社取締役)同上
▲緒方[illegible]大氏(同營業部長)同上
▲[illegible]川咸鏡南道知事 八日午後入京 朝鮮『호텔』에

001111

秩父宮殿下 만체스터御見學

【만체스터八日發同盟】秩父宮殿下께서는 八日午前宮井參事官前田事務官을 거나리시고 리버풀市로부터 工業都市 만체스터市에 御到着、御少憩하신後 市中만체스터運河살포드工場地區를 順次로 御見學하시엿다

北中及滿洲는이미한곳

石炭埋藏量十億噸!
世界的炭礦撫順視察

特派員 普容

六月九日

登程第三日인 六月九日은 우리一行의撫順炭礦視察日이다。撫順은 奉天東方 約三十키로의 地點에잇는 人口約五萬의 一城市로서 昔日에는 撫順城이라 稱하엿다。東南으로 奉天을侵入하려는 外敵阻止에는 가장 重要地帶로 撫順城守備如何는 곳 奉天城의 運命을 決定하게되엿다 日露戰役時에도 當時撫順을守備하든 리네위치將軍이 鴨綠江軍에게 不意의攻擊을 當하게되엿데 基因한다한다。

그러나 現在撫順이 有名하여진것은 古都古城 或은 戰略上 要衝地로서가 아니라

炭礦都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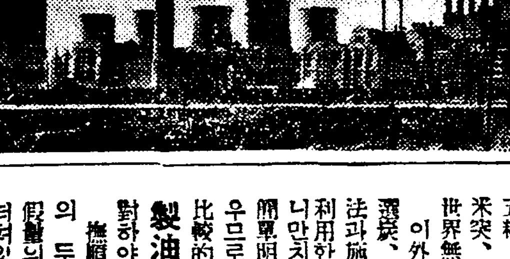
로 有名하여젓다 우리視察團이 撫順을 찻게된것도 勿論 炭礦撫順을보려한데잇다。

昨夜 奉天夜景을 求景하노라고 늣게잣든 團員을 아침여섯時前부터 이르켜 七時半이라는 일흔아침時間에 奉天驛을떠난 一行은 한時間二十分後에 撫順驛에 到着하엿다。驛頭에서 本社撫順支局長 文明善氏外 數三人의 地方有志와 撫順驛長의 따뜻한 歡迎人事를 바든後 一行은 遲滯업시 곳 視察 "코ー스"에드리가 驛先 停車場構內에適當한 撫順炭礦의 略圖에依하야 案內人으로부터 說明을 드른後 "빼스"를타고 新市街、舊市街를지나 大山坑、古城子坑 露天堀、오일쎌工場等 現地踏査視察하며 여러가지細密한이야기를 듯게되엿는데 只今나는그案內者에代하야以下撫順炭礦의全貌를그려보려한다。

撫順炭礦의 鑛區는 東西(長)十七粁、南北(幅)四粁、面積六千十六萬平方米突이라는 廣範圍에 跨하는區域으로 炭層은 東部十五米突假籠으로부터 西部에는一百二十五米突까지잇서 平均四十米突이나되며

總埋藏量

은十億噸으로推算되어 世界一의 稱이잇다。炭田의發見及 採掘에對한記錄은 詳細치안흐나 只今으로부터約 六七百年前에 當地에住居하든 高麗人들이 이것을採掘하야 陶器製造燃料에供하엿스나 高麗人들이 鴨江以南으로 나온以後 數百年동안은 地方土人의燃料以外에는 兵亂不絶로 採掘은 全然度外視되엿다。더욱히乾隆年間에이르러는 撫順은淸朝의 永陵、東陵、北陵等으로부터 咫尺之處라는 理由로 爾來數百年間 大炭田은 全然閉塞되엿다。그리다가 近年即 光緖二十七年(明治三十四年)에 淸人某가 政府의許可를어더 採掘을始作하엿섯는데 그利權은未久에 [illegible] 社에歸하게되야 事業을 始作하려할즈음에 日露戰爭이이러나 明治三十八年三月 日本軍이 占領한後 同四十年四月 滿鐵創立即時로 此를繼承經營하게되엿다。처음(明治四〇)에는千金寨、楊柏堡及 老虎臺의 三坑뿐으로 出炭量이 年二十萬噸에 不過하엿스나 現在에 이르러는 十餘坑이나 되는데 一日出炭만 하드래도 二萬五千噸以上、年産은八百萬噸이라는 世界有數의 大炭礦으로 日本內地總出炭의 四分之一에 該當하며



滿鐵經營

以來의 出炭量은 實로 一億二千萬噸에達하엿다。

撫順炭礦에서 가장有名한것은 露天堀인데 露天堀이라는 말은 坑內에드러가 파는것이아니라 表土를벗겨내고는 그아래잇는 無盡藏의石炭을 그냥파낸다는말이다。露天堀의代表的炭田은 古城子露天堀인데 炭田最西端에 位置하야 延長五粁、埋藏量 一億五千萬立方米突、一日出炭 一萬噸이라는 世界無比의 露天堀이다。

이外에 石炭의採掘、運搬、選炭、坑內通風、排水等의 方法과施設은 近代科學의眞髓를 利用한 彪大精鋭한 機械裝置니만치 너무專門的이기때문에 簡單明瞭히 이야기하기 어려우므로 略하기로하고 一行이 比較的 仔細히視察한

製油工場

(오일쎌工業)에 對하야 數言을費하기로하자。

撫順炭山上層 約百三十米突의 두터이로 總量 五十億噸의 假籠의 油母頁岩(오일쎌)이 더펴잇는데 上層三分之二는 平均 約六%의 含油量을갓고잇다。「油飢饉」日本에서는 이것을利用하려고 오래前부터 研究한結果 大正十四年에이르러 所謂撫順式乾餾法考案이完成된 以來 昭和四年부터 作業에着手하야同十一年에는 十四萬五千噸의原油를 엇게되엿고 昨年부터는 三年繼續事業으로 原油年生産 三十六萬噸을 目標로 一擧『油飢饉』問題를 解決하려는 意氣이다。作業過程을보건대 油母頁岩을 乾餾爐에너코면 瓦斯中 油分은 液體로分離되고 殘滓는 硫酸安尼亞로 回收된다。紙面關係로 仔細히記錄할수업스나 何如튼 "오일쎌"은 廢物은조금도업고 그全部가 高價有用品으로

轉變利用

된다。年額二百九十萬噸의 油母頁岩을 乾餾하면 原油十四萬五千噸及 硫安三萬噸을生産하게되는데 이原油에서 重油六萬噸、輕油一萬噸、粗蠟二萬噸、骸炭一萬五千噸及 揮發油一萬噸을生産하게된다한다。

이炭田에쓰는 苦力(中國勞働者)는 約四萬名이된다는데 會社側에서는 八時間勞働制(一日三交代)에 平均日給이 六十錢이라하나 實際作業關係로 普通十時間以上勞働에 平均日給은 겨우四十錢을 넘지못한다하니 그들의 生活을 可히알수잇다。

世界的大炭山 撫順을 視察한 우리一行은 感慨詞를 連發하면서 午後四時에 奉天城에도라왓다。=續=

(寫眞은 製油工場)

總督府純剩餘金 三千八百萬圓
稀有의大記錄

昭和十一年度總督府歲計決算은 九日財務局으로부터 左와如히正式發表하엿다 (單位千圓)

歲入	三八四、四九〇
歲出	三二四、四七〇
差引歲入超過額 (剩餘金)	六〇、〇二〇

그리고十年度剩餘金四千六百二十六萬圓에 比하면 一千三百七十六萬圓의 增入을 示하야 그中二千百九萬圓은 十二年度에 繰入케되엿다即

十二年度豫算에繰入計上額	一五、四四〇
十一年度歲出豫算의十二年度에繰越額 (十二年度財源繰入)	五、六五〇
計	二一、〇九〇

八面鋒

◇ 大院君의 洋夷排斥以後 西洋人의傳道事業은 그야말로 荊棘의길을걸엇다。

◇ 적어도 最近半世紀間의 朝鮮開化史를 돌아볼때에 우리는 洋人의功績을 먼저 致賀한다。

◇ 敎會가 間接으로준影響은 한글普及에 그 힘이잇슬것이오、直接으로준利益에는 敎育事業이 그 첫재이다。

◇ 病院을設施하야 博施濟衆의 하누님道를되엇고 孤兒를收養하야 相扶相助의範을뵈엇다。

◇ 우리는、只今의宣敎寶、오늘날의洋人群이 아모리 刻薄하고 冷情하다할지라도 過去의恩功을 저버릴수는업다。

◇ 이러든敎寶、이러든洋人이物換星移 세월이 박귀엇다하야 하누님道까지 박귀엇든가。

◇ 事業을 그만두고 撤歸함은 出於不得已라할지라도、學校의 經營을 讓渡함은 무슨까닭일가。

◇ 敎會는 敎會요、學校는學校 敎育을爲하야 세운機關이니 敎育을爲하야 남김이當然。

世界裁縫界大攪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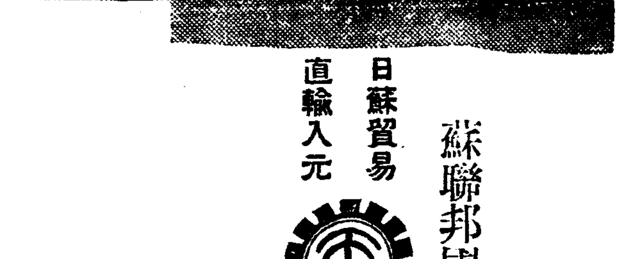
ソ·ヴエイト國營
ユニオン裁縫機

特長
1 前進後退가自由自在
2 價格世界壓倒的廉價
3 品質何國ミシン을莫論하고追從不許

既設分店
京城府竹添町一丁目 京城總分店 金景圭
元山府本町五丁目 朴林俊
平壤府慶林里二〇一 金廷佳
三陟郡邑內 鄭良植
慶興邑內 黃鳳普
利川邑內倉前里 李鍾夏
延白邑內 廉成泰
麗水港榮町 呂仁鉉
定州邑內 鄭聖柱
金堤本町三丁目 沈鍾局
高原邑內 金瓌
寶川邑本町 金禎河
寧山郡古場市 白炳化
開城東本町四五六 李興信
咸興黃金町一丁目 金鶴周
谷山邑內 康東奎
江原道鐵原邑 朴斗亨
黃州邑 表仁淑
東京日本橋區江戶橋一丁目 加賀ビル一階 中村要之助

月賦販賣를開始
日本朝鮮臺灣南樺太南洋群島及滿洲各都市에分店을募集

萬國標準型



滿洲、大都市에限하야總代理店을募集함
奉天、大連、間島、吉林、新京

日蘇貿易直輸入元
蘇聯邦國營『ユニオン裁縫機』
三福合名會社
京城鍾路四街里
電話光一六四八
振替京城一五〇八一
取引銀行 第一銀行 漢城銀行

分店規定並型錄即時進呈

慶北地方치水害

聞慶、榮州、奉化地方豪雨로

死者四名田畓流失

【大邱支局電話】칠일이래로 경북일대에 내린호우는문경(聞慶)지방에 금년들어 처음수소식을전한다 이지방에서팔일오전까지 내린우량은 문경이 일백삼십사미리요、봉화(奉化)가 일백이십구미리요、영주(榮州)가 일백이십이미리요、례천(醴泉)륙십사미리로서 사람네명이물에 떠내려가죽고 류실된논이삼정보요 침수된 논이오정보라는바 죽은 사람은다음과갓다

聞慶郡加恩面簡易學校訓導 金東洙(三七) 同郡同面西南面興德里 金用淳(四) 同郡同面校村里 金炳植(一五) 同郡山陽面存道里 李桂九(九)

漢江上流大增水

驪州地方은六米以上

요사히 얼마동안 비가 내렷다 머젓다 하더니 아주 여름장마철로 들어가는 모양인지 한강(漢江)의 물도 벌서 경계(警戒)요하리만치 불어가고잇다 칠일오후 네시부터 내린 비가 경기도 려주(驪州)부근에 칠십오『미리』구분이왓는데 팔일오후하시 사십분에는 그부근 한강상류의 수위가오『메돌』로 증수되엿고 려주군강천면리호리(康川面梨湖里)도선장부근은륙『메돌』로증수되여이때문에 원주(原州)방면과의교통은 모다두절되고 말엇다 아직가래서는 복구될 희망이업시더욱한강물은 불어가고잇다

忠南北地方도

各地被害莫大

橋梁流失道路破壞

칠일아츰부터 충청남북도(忠南北)와 경상북도(慶北)일대에는 호우(豪雨)가와서 각지피해가상당한모양인데 구일아침경무국에 도착된 보고에의하면 경상북도 문경군가은면(聞慶郡加恩面)가은천이 증수범람하야 교통이전부 두절되어서 상세한 상황은 알수업스나 충남공주(公州)론산(論山)등지를 위시하야 충북청주、충주、제천、괴산(槐山)등북 문경일대에는 도로、교량、제방등의 류실피해가 상당한모양이며 청주괴산일대에는 가옥침수도상당히 만흔모양이다

石塔下에壓傷

팔일아츰 여덜시반경 부내서대문정이정목 이십팔번지 김의갑(金義甲)(一九)군이 이웃인이십칠번지 석재공장(石材工場)에들어가 동무들과가치 놀고잇다가 석탑이쓰러지는데깔려 빈사의중상을입어적십자병원에 입원치료중이엿스나 구일아츰 여덜시경에 드듸여 절명되엿다

朝鮮○○軍秘書科長

尹永配等公判에

治維違反、強盜、恐喝等罪目

新義州法院에서豫審終結

【新義州】조선○○군(朝鮮○○軍)비서과장(秘書科長) 유영배(尹永配)외 여섯명에 대한치안유지법위반 강도치사 공갈사건은그간 신의주지방법원도변(渡邊)예심판사의 취조를받고잇든바지난칠일예심이 종결되엿슴으로 당일로 공판(公判)에 회부되엿다 피고(被告)는

▲本籍 宣川郡以下不詳 住居 新義州府內 農業 吳達秀(三七)

▲本籍 平北寧邊郡以下不詳 住居 不定 無職 尹永配(三〇)

▲本籍 京畿道水原郡長安面 住居 不定 無職 東宗路(三五)

▲本籍 平北碧潼郡以下不詳 住居 同 松西面五西洞 無職 金龍奉(三七)

▲本籍 義州郡以下不詳 住居 平北碧潼郡吾北面五上洞 無職 申泰亨(三〇)

▲本籍 雲山郡以下不詳 住居 碧潼郡吾北面五上洞 無職 全禮浩(二九)

▲本籍 平北龜城郡以下不詳 主居不定 無職 全大華(二七)

▲尹永配는 수원(水原)지방법원에서 징역일년을받든 전과자로 서당(書堂)교사 혹은 로동자로 전전하다가 소화구년 만주(滿洲)로 건너가 국도철국의 공사에 종사하든중 십년사월 흥안현(興安縣)에서 조선○○군에게 권고를받아 정무원비서(政務院秘書)로되여 그후비서 과장의 자리에서 취고 집무를하고잇든바 조선내공작위원(朝鮮內工作委員)류광호(柳光浩)로부터 조선내의 운동이유리하게전개 되고이슴으로 운동자금을 보내라는 편지를맛고 가른피고인 차종로 김홍봉 신태형 김례호 전대회를 거나리고 각처로 도라다니며 삼천여원을 강탈하얏다에서 징역일년을바든 전과자로

枕軌納凉의悲劇

"三兄弟"外一名都合四名轢死

昨夜松汀里、寶城間서

철로를 벼개삼고 단꿈을꾸고잇든 무지한 농민이 한장소에서 한꺼번에 네명이 즉사하엿는데 그가운데서 삼형제가한꺼번에 깔려죽은 비참한사고가잇섯다 팔일 오후열한시반에 송정리(松汀里)를 떠나 보성(寶城)으로가든 제삼백구십사렬차가 화순(和順)만수(萬水)사이를 진행하든중 선로에 누어자든 화순군화순면계소리(桂所里) 배동수(裴同水)(二九)배종진(裴鍾鎭)(二〇)의 삼형제와그이웃동리 라리(羅里) 김상국(金相國)(二〇)등 네명은 그열차에 깔려서 모두즉사하엿다 피해자들은 논에물을 대려나갓다가 선로안에서쉬고잇든중 곤한잠이 드러서 그만 깔려죽은것이라한다

高商生飮毒

팔일오후 여섯시 십분쯤에부내명치정(明治町)이정목이십오번지『다찌바나아파-트』구호실목촌도웅(木村道雄)방에서 고등상업(高商)학교 삼년생 삼원륭홍(杉原隆弘)(二二)이가『아다링』을먹고고민하는것을 공부근판정(坂井)의원에 입원시키고 치료중인데 생명이위독 하다고한다 웅본현(熊本縣)출생인 그는 부내황금정(黃金町)일정목 일백오십칠번지에사는그의삼촌 고리대금업자 교본등작(橋本藤作)의 집에유하고 잇섯는데 이삼일전부터 전기『아파-트』의 동창생목촌이가 여행을간사이에 임시로유하다가 그가리 자살을하려고한것이라하며 원인은 아직알수업다 하다

고약한자근아비

조카딸을파라가지고

주색에낭비가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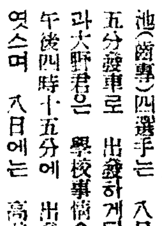
조카딸을 파러서 주색에랑비하든 자근아비가 도다시그버릇을계획하러다가 붓잡힌일──원적을 전북의산군리리옥정(全北益山郡裡里旭町) 이백구십일번지 에두고 부내연희정(延禧町)삼백삼십구번지에사는 무직랑한휘(粱漢輝)(四二)는 자기조카딸 무산(茂山)사는 량상섭(梁相燮)과 약혼을하야 지난 사월이십이일밤차로 각각月的地警同하야 發(…)

"母"性"愛"殺"人

妻女의幸福爲해不義兒죽이고

法廷에슨그어머니

딸의 장래를 생각하야 딸이 출일에 결혼직을 거행하기로되동리 사나히와 관계를 매저 난 엿는데 의외에도 최금득은 색시어린애를 죽이고 살인죄로 법의 몸으로 그동리 김용문(金龍汶)이라는 총각과 관계를매저정에 서게된 가엽슨 어머니─강원도 김화군 창도면 창도리(金華郡 昌道面 昌道里) 박대아기(朴大阿只)(四七)에 관한 공판이 구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주심、근등(近藤)검사관여미테 열리엿다 피고는그의 셋재딸 최금득(崔金得)(一六)을 권(權)모의 소개로 함흥무산(茂山)사는 량상섭(梁相燮)과 약혼을하야 지난 사월이십혜두고 어린애를나엇다 피고는이사실이 탄로되면 약혼은 해소되야 그의 딸의일생이 망처질일을 생각하고 그의딸이 난어린애를 질식 식혀죽여버린것인데 그는 재판장의 심문에대하야 어미로서 자식의 잘못을 몰름이 아니로되 참아 자식의 행복이 깨어지는것은 그대로 볼수가업서서 자식을 생각하는마음에 불의의씨를 죽여버렷다하야 자식의행복을 위하야 자기몸을 희생한 어머니의 마음을 하소연하엿스나 검사로부터 징역삼년을 구형하엿는데언도는 오는 십륙일에 내리기로되엿다



順安義明校는

朝鮮人牧師側이引繼

今後의經營方法을討議中

順調로落着된再臨敎經營校

기보=단새날부터 부내회기정(回基町)아식교회당에서열닌 재림교회조선합회평의원회(朝鮮合會評議員會)에서 지난삼월 페교결의를한 동교경영의 평남순안(順安)의명화교(義明學校)를 다시계속경영하느냐 안느냐하는데 대하야 신중토의를하고잇다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본래 이회의의공기는 조선인측 회가체가 다시계속하야 경영할의사를가지고잇는것이아니라 동교조선인 목사측에서 력사오랜 학교를 폐교한다는것은 애석한일이니 존속케 하도록 성의잇는 운동을 맹렬히하결과합회로서도 그성의를 인정하고 기한부로서 조선인선교측에 경영을 맷기자는것으로 회의내용은 조선인 선교사측에맛기는것을 전제로하고 경영의구체적 방법에 대하야 토의를거듭하는중이며 칠일까지의 회기에는 최종적결정을 보지못하고팔일까지 속행하엿스며 구일부터이삼일동안 휴회한후 다시 회의를 계속할예정이라고 한다 회의가 이와가티 여러날을두고 끄으는것은 합회와현재직원사이에 약간 데리케-트한 관계가잇는까닭으로 이문제도 쌍방의 성의잇는 해결을 기대할수잇슴으로 조선인선교사측에서 인계경영할것은 대체로 틀님업는사실로 보히나 여러가지 수속문제로 상당한 시일이 걸일것이라고한다

特別列車"曉"

客車七輛新造

(…)에서 제작중이든 특별급행렬차려서 이십사천원을들여 『아까스끼』에 쓸 객차(客車)일곱대가 요지음에완성되엿나 그대는 종래의이조(二組)편성이든 것을 삼조로편성하게되여 그운용에 여유가잇게되엿나 이번새로맨드는 대체로 전저번에제작한것과가트나 사용한 실지경험에따라서 두서너가지 개량하엿다하며 그 일합대는 전망차(展望車)한대와 이등차 하대와 삼등차세대와 수하물차(手荷物車)한대와 식당차 한대 이다 한다 삼등차는 기왕의것도 훌용한것이잇스나 이번 온다시객실내부의설(備能)을 잘하엿고또일부설계를 변경하엿기때문에월신 모양이 조하서 이등차로하드라도 부끄럽지 안흘만한 고급차이라한다 이새로만든 차로는 『처녀객차』는일간에 처음으로 경성부산(釜山)사이의 순남을 태우게될터인데 이 가타게 될 려객은 이중명랑한 기분을 가질수잇스리라한다

忠北線梧根場驛에

飛行機一臺不時着陸

一臺는空中에서旋廻中

【淸州支局電話】구일오전 열한시경에 충북선오근장역(忠北線梧根場驛)부근에 비행기 한대가 물시착륙하엿고 또두대의 비행기는 착유항하엿는데 청주근장역부근의 공중에서 우회하고잇다한다 이소식을듯고 청주경찰서에서는 수명의 순사가현장에 달려갓스나 아직자세한것은 알수업고 정기항공기인지 또는 군용기인지도 알수업다한다

세는호리엿고 비도 오락가락하는중임으로 혹은 정기항공기가 운무에 가려서 길을일코 그곳까지 와슨것이나 아닌가하야매우 궁금히역인다

熊谷機로判明

이비행기의 정체를 경성비행장에알아본결과 이비행기는 웅곡비행학교(熊谷飛行學校)의 군용기로 신경(新京)으로 날려가든도중에 한대가 물시착륙하게되는동시에 『프로펠』이 파손되엿고 다른두대는 여의도(汝矣島)에 이르러 기름을 너어가지고 신경으로 날려갓다한다

트럭가轉覆

人夫兩名失踪

바라스會社夜役中에

구일오전한시반경에 한강서빙고(西氷庫)부근에서 여섯명이『바라스』운반용이울려내려가는『도로꼬』(지갈)회사인부 그러매고저씹트를라고 작업을하는동에 뻘드가전복이되여 네명은강물로 헤여갈뿐저 나왓스나 두명은 행방불명이 되엿다 심야가되여 수사도 하지못하고방금동산서에서행방불수사중이다

一男二女두고

逃亡한어머니

고양군숭인면길상리(高陽郡崇仁面吉祥里) 김재근(金在根)의처 김성녀(四二)는 생활난에 견듸다 못하야 가정에는 어린자식삼남매를 버리고 지난 유월이십구일에 무단이 집을 나간후 도라오지 아니함으로 혹 자살이나 아니하엿는지 남편되는 김재근은 어린자식을 다리고 거리에서 방황하면서 일산주재소에 와서 차저달라고 수색원을 제출하엿다한다

愛妻爲한殺人犯

檢事死刑求刑

지랄병에 사람고기를 먹으면 낫는다는말을 듯고 고치기위하야 사람고기구할 기회를엿보고잇든중 우연히 자기집에밥을 비리러온 거지를보고 그를 죽인후 고기를버여쓸 생각이나서 거지에게 밥을주고 데리고가서 때려죽인다음 두눈과코 뺨가른곳의고기를 버혀다가 안해에게 먹인혐의로 살인、사체손괴죄득(死體損壞罪得)죄에 걸리여 일심에서 사형판결을받고 불복공소한함남 문천군 운림면 오룡리(文川郡雲林面鰲龍里) 김룡백(金龍白)(三二)에 관한 복심공판은 구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지전(池田)재판장주심 의전(依田)검사관여미테 열리엿다 재판장의심문에대하야 피고는 그의안해김보배(金寶培)가 지랄병에 걸린사실과 거지차창원(車昌元)이가 자기집에 밥을어더먹으러와서밥을주엇을뿐이엇스나 그를죽이여버여다가 그의안해에게 주사실은전연업는일이라고 사실을극력부인하엿다 검사는 역시사형을구형하엿는데 언도는오는십륙일에 내리기로되엿다

天氣豫報

槪況 小笠原島附近으로부터 西日本及 朝鮮에퍼지고잇는滿氣壓은 그勢力이 弱하야지고 低氣壓은 日本海中部와 北海道南東海上에잇고 滿洲는 晴雲不定이고 朝鮮北東岸은개이고其外는호리며 南朝鮮은 處處에안개가끼이고 또處所에따러小雨가오고잇다 西日本에 太平洋岸은개이고 其他는호리고 處所에따러 小雨가잇다

豫報 京城地方今夜와明日은개엿나 호렷다가며 京城은區區갓다

昨日最高 二五度六
昨日最低 一七度八
今朝最低 一八度九
今日正午 二五度四

스포-츠欄

世醫專登攀隊

長白山과漢拏山에

昨夏에 太白山脈縱斷登攀(集仙峰、雪岳山、太白山、五台山)을 마치어 學校登山隊로 最初의快記錄을 지은 世富蘭偲醫學專門學校에서는 今夏에도 登山本來의目的과 및農村、山村衛生施設調査等을 爲하야 長白山脈雲頭峰登攀隊는 隊長崔永泰氏引率下에 第一回南朝鮮巡廻及漢拏山登攀隊는 隊長李世珪氏引率下에 十一日밤車로 各各目的地를向하야 發程하기로되엿다한다

延專校內水上

第五回延專校內水上競技大會는 七日午前九時半부터 京城運動場풀에서 擧行한바 當日의 入賞者는 다음과갓다

▲五十米自由型=1閔丙斗三三五秒 2姜聲振三八秒八 3金萬福四〇秒

▲百米平泳=1姜聲振一分三五秒 2胡在晟一分四〇秒八 3朴東奎一分五〇秒二

▲百米自由型=1閔丙斗一分一四秒四 2鄭泰義一分五一秒四

▲二百米平泳=1井明淑三分四五秒八 2胡在晟四分一四秒一 3金恩雨四分五〇秒

▲二百米自由型=1姜聲振三分三秒二 2金景洙四分五五秒 3張利鎭五分一七秒

▲百米背泳=井明淑一分五五秒 2金谷日三分五七秒八

▲教職員五十米自由型=1元漢慶五一秒三 2朴孝參 五五秒二 3申濟麟 五八秒

▲四百米自由型=1井明淑 八分一四秒 2姜聲振 八分二四秒 3安命吉 八分五二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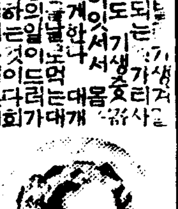
▲二百米繼泳=舊勝 二分五二秒

卓球代表登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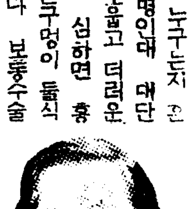
來十四、十五、十六의 三日間 東京에서 열리는 關東、關西卓球對抗戰에 關西代表로 出場케된 朴鍾楠(大邱)高岸頴(普專)大野(大邱)菊池(醫專)四選手는 八日午後十時五分發車로 出發하게되바 朴君과大野君은 學校事情으로 十日午後四時十五分에 出發하기로되엿스며 八日에는 高岸과菊池君이 先發하엿다

高商野球部遠征

第一回全朝鮮大學、高專野球大會決勝戰에서 京城醫專軍에게惜敗하야 第二位를 占한 京城高商野球部는 京城醫專軍과 함께 香椎球場에서 열리는 全日本實業專門學校野球大會 九州地方豫選에 出場하고저 十日午後四分十五分 京城驛發車로 遠征할터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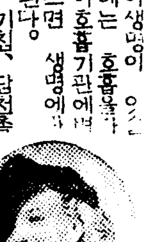


회충촌충엔 오리가 도루사 가제일



치질엔 엥구루 가제일

치질은 누구든지 흔히알는병인데 대단히 괴롭고 더러운병이라 심하면 흉업게 큰구멍이 뚤닉세기난다 ... 엥구루는 ...



해소기침엔 에치세 가제일

사람이생명이 잇는동안에는 호흡기관에 이잇스면 생명에 게가된다 ... 신성당명약「에치쎄」...

속병체증엔 겡오 가제일

누구나 체증이잇는대 ... 겡오는 ...

무슨약이든지약을써보시고 만일무효면 어더한책임이든시 집니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 (五) (제일은백옥양관)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 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三三四·一〇七七番 振替京城四九五〇

現品在庫即時据付

アイスケーキ

アイスケーキ

アイスクリーム

京城府黃金町四丁目 (交叉點前)

國益冷凍機會社 鮮滿營業所

小資本工業 內案

今八時 一夏純益參千圓

小兒科專門 醫學博士 方斗翰

京城府齋洞町四街路 (入院隨意)

電光二三五三番

精力強進劑 參茸トニク

虛弱者의體質改善에! 健康者의精力增進에!

特に男子의早老에效果百%

三週一圓八十錢、五圓

(請求에應하야醫學博士實驗報告書와見本無料進呈)

丁子屋外各地有名藥局에서販賣

京城鐘路三丁目 製造元 慈善堂製藥株式會社

京城本町四丁目 發賣元 株式會社 木村藥房

各社新譜 레코-드十枚에壹圓! 極東商行

흰머리 白毛 노란머리 赤毛 染 루리하

특증

윤택나는 옷빛가튼머리… 도드록하고도

一、먼저이처일조흔염료제
一、머리털을윤택하게 하고도공을는당
一、약손이쉽게하고 더운물에풀닌다
一、착착붓는 머리털을 도트아게보이게한다
一、감으면 갈사록 쥬름더하게하아베개니에 불이안붓는다

우리녀성은언제까지나 젊고아름답고 원기발자한 인생을명랑하게보냅시다

るり羽 髮は洗はずとも 藥は湯にて 直く染まる

입으로들어오는병을막고
정신을상쾌하게하는!

口中殺菌劑 카오-루

衛生口錠

「여름의건강」은本劑의常用에서!

飮食後 外出時 疲勞하거나 倦怠時 사람모힌곳에게실적……等에는

『가오-루의二三粒을服用하시사病菌을驅逐하고元氣旺盛히더위를克服하여서今年여름의健康을保持합시다』

반듯이 德用瓶을써주시기위하야

專賣特許一〇〇八九八號 意匠登錄旣願

携帶用「防濕瓶」無代進呈 거저드립니다

進呈方法

德用瓶五十錢、壹圓、그어느것이든지한개사주시는분의게全鮮各藥店에서即時빠짐업시進呈함니다

配劑와効用

製劑顧問 덕터ー 松尾道

一、口中殺菌劑를配合함
그럼으로空氣 또는飮食物과함께 입으로드러오는諸種病菌을입안에서殺菌키때문에여러가지傳染病을豫防함

二、健胃整腸劑를配合함
그럼으로 胃를健全히하고 또한消化力을亢進식혀서 殺菌劑와서로協力하야 泄瀉 腸가다루등을治療함

三、興奮劑와强壯劑를配合함
그럼으로心身의疲勞沈衰時에는 各機能을興奮식혀氣力을恢復旺盛케하고 健胃劑와더부러肉體를强壯케함

四、清凉劑와美化劑를配合함
그럼으로그特有의芳香으로 입안의惡臭와惡熱을除去하며 祛痰劑는咽喉의乾燥를축이고 音聲을美化식히며 그에따라서精神을爽快케함

定價와容量

袋入	(十錢)	百粒
同	(二十錢)	二百五十粒
포켓트容器付	(三十錢)	三百粒
御勾玉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鞄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美術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保健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德用瓶入	(五十錢)	八百粒
同	(一圓)	二千二百粒

더위를잇게하고 구미를돗아주여
무사히여름을지내시게하여줍니다

本舖 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 株式會社 安藤井筒堂藥品部

라디오 JODK

九日(金曜)

◇午後六時(京) 英語講座(五의六) P・D・퍼ー킨스
◇同六時三〇分 兒童과先生의時間 一朗讀、對話、唱歌 一年生 二、朗讀과이야기 鴨綠江の夜流し(讀本卷七、一〇四頁)四年生 竹添普通學校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平)夏期課外講話 렌토겐이야기 宋 熙 禎
◇同八時 講演 日常生活과法律 李 琮 夏
◇同八時三〇分 (東)音樂과文學 (第六回) 一、交響詩『보헤미아林의草野』中에서…스메타나作曲 二、交響詩『水神』…드보르・자ー크作曲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요ー제프・로ー젠・슈톡크
◇同九時 古談 黃狗 金 丸

第一放送

◇午後六時(城)[illegible]講座
◇同六時三〇分 (東)小音樂會
◇同七時三〇分 (東)[illegible]
◇同八時三〇分 (東)音樂及文學
◇同九時 (東)時事解說

十日(土曜)

◇午前一一時 一五分 家庭時間 여름의食事衛生 醫專教授 金 浩 植
◇午後零時五分 (東) 하!모니카合奏 一、行進曲『오ー르아메리카』 자메닉크作曲 二、세레나ー데 드리고作曲 三、푸론도나우 요한슈트라우스作曲 四、라、파로마 이라뒤에르作曲 五、維納萬歲 삼메르作曲 六、세레나ー데 슈ー버ー트作曲 七、土耳其行進曲 베ー토ー벤作曲 獨奏 레코ー드音樂 宮田하ー모니카밴드 編曲及指揮 宮田東峰 指揮 古關 裕而
◇同六時三〇分 地理이야기『파나마運河』 韓 碧 波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講演 情緖敎育에對하야 尹 貞 石
◎어린이와家庭의저녁◎
◇同八時 童謠 1、퐁당퐁당(桂) 2、애기별(桂) 3、참새의춤(桂) 4、오뚜기(桑) 5、제비말(桑) 6、보름달(桑) 7、수레(桑、桂) 8、헤비온쟁쟁(桑、桂) 桂 惠 蓮 桑 貞 姬 伴奏 DK管絃樂團
◇同八時二〇分 童話劇『月宮에서떠려진토끼』 京城保育學院兒童
◇同八時四五分 흉내 指揮及伴奏 金 龍 煥 張明浩
◇同九時 古談 『그어머니의그아들』 車 靑 吾

第一放送

◇午後六時 (城) 講演
◇同六時三〇分 (大) 이야기
◇同七時三〇分 (城) 講演
◇同八時 (東) 講談
◇同八時三〇分 (京) [illegible]
◇同八時五〇分 (東) 浪花節

十一日(日曜)

◇午後〇時五〇分 라디오小說『犧牲』 黃 [illegible]
◇同一時二〇分 레코ー드音樂
◇同六時三〇分 童話『물사람人魚』 高 在 天
◇同六時五五分 修養講話 朱 [illegible] 宣
◇同八時 一、小春香歌 二、풋고초 三、바위打鈴 四、興調 五、최모리 맹꽁이打鈴 俞 銀 [illegible] 全 光 [illegible]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楚漢歌 二、唱劇調 興夫歌 宋 英 淑 歌手 韓 成 俊
◇同九時 歌曲 一、羽調[illegible] 二、羽樂 三、還界樂 四、界樂 五、編 金 蘭 珠
朴 蘭 玉 津笒 金 相 淳 大笒 金 永 根 杖鼓 金 一 宇
◇同一〇時 바이올린獨奏 協奏曲 G短調 부루ー흐作曲 第一樂章 前奏曲 第二樂章 아다지오 第三樂章 알레그로、에네르지코 피아노伴奏 桂 貞 植 朴 賢 淑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城)童謠
◇同二時 (東)能樂
◇同六時三〇分 (城)童話
◇同七時三〇分 (京)講演
◇同七時五五分 (大)國民歌謠
◇同八時五分 (東)日曜演藝
◇同八時三〇分 (東)宮薗節
◇同八時五〇分 (東)浪花節

家庭

빗갈곱고맛조흔 당철의가지반찬

사랑에서구미가업서하실때는 ◇그중의별미멧가지

보라ㅅ빗 나는 가지는 그 고운 빗갈로만도 여름의 식욕을 자아 내는데다가 그 맛도 찌거나 무치거나 다 조하서 여름식탁에서 빼지 못 할 반찬입니다。그런데 우리네가 늘 해 먹든 식으로 가지선이라든지 가지나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치오만은 잇다금 가다가는 좀 별다른 식으로 고처도 노흐서야 사랑방의 구미가 더한층 잘 동하게 되십니다。

■별식가지찜■

가지의 꼭지를 따고 껍질을 벗기지 말고 쪄서는 껍질이 벗겨지지 안토록 주의해 가며 속을 도려 냅니다。별달리 고기와 다마넹이를 곱게 다저서 그속과 함께 양념을 하고 간을 마치어서는 도로 그속에다가 채워 넛습니다。그런 뒤 부칠질하는 철판우에 노코 빠다를 녹이어서 부치는데 그 속이 골고로 익도록 압뒤로 뒤적이어 잘 부치어야 합니다。그래서는 그대로 먹어도 조치만은 또 혹 식성에 딸아서 화이트쏘스를 처서 먹어도 무방합니다。

■별식가지튀■

가지를 기리로 빼저서 열븐 소금물에 채워서 떫븐 맛을 뽑고 하나하나 마른 행주로 물ㅅ기를 훔치어 냅니다。가지란 원낙 물ㅅ기가 만흔 것이니까 잘 훔치지 안 하서는 재미가 업게 됩니다。그뒤런 기름에 튀해 냄니다。튀해 낸 가지를 정한 조이에 바치어 노흐면 기름ㅅ기가 빼저서 거르로 주르르 흐르는 것이 업습니다。그러고는 푸른 풋고초를 씨를 바르고 곱게 다저서 진간장에 탑니다。그래서는 그 고초간장에 찍어 먹습니다。

■별식가지김치■

몬저 솟에 물을 붓고 흔못을 두서너개 씻어서 너코 소곰을 진하게 타고 끄리어서 아조 실컨 석도록 노하 둡니다。그 다음 그다지 굵지 안한 가지로 골라서 잘 씻고 꼭지를 따서 등에 너코 아까 그 소금물을 붓고 통고초를너대ㅅ개 너코 무거운 돌로지질러 노코 뚜껑을 꼭덥습니다。하로쯤 지나서 국물이고이면 가지가 뜨게되는 동시에 빗갈이 벌거케 되니까 꼭 돌로 지질러 노코 뚜껑을 꼭 덕퍼야합니다。그러케 한 사날지난뒤에는 껍질이 연보라로 빗나고 속이아조 하얀것이보기부터 곱습니다。그 국물은 두고 두고서도조호나 단지 쓸때마다 한번다시 끄려내야합니다。밥상에 노흘때는 기리로 알마치 비어노하야 합니다。

위험천만! 미친개는어떤가

—요새만히생긴다—

개도기르는법을 모르면 병이 들던지 나쁜버릇이 드러서 나종에 처치하기곤난해지는수가잇습니다。뿐만아니라 개를멕이지 안튼 사람도 얼른보아서 저개는 버릇이 나쁘다던지 밋친개다 하는것을 알어채리지 못하면 난감할때가 만습니다。더욱밋친개에게 물려서고생하는 사람이해마다느러가는때이라 얼른보아서 아라채릴방법을 간단히 이야기하겟습니다。

(가) 개가 밋친병에걸리는 초기는 심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놀래기를잘하며 허둥지둥하야 주인이나 다른사람을 닥치는대로 무려뜻습니다 소리가 이상해지고 눈에붉을를리도록 눈알이 변하며 늘침울 흘리고 혀를착느려트리고 단입니다 이러한개를 만나거던 밋친개인줄알아채리고 피해버리지 안호면 안됩니다。

(나) 코끗치 밧삭 마른개는 위장이 탈어난것이니 하로쯤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위장약을 먹이도록하며 경과를 보아가면서 천천히 소화잘될것을 먹이기 시작해야합니다。 홁을 뜨더먹던지 홁을 파서 할고잇는개도 위장이탈낫습니다。

(다) 설사를하고 늘 물똥울 싸는개는 밥에다 두부찌깨기를 만히석거서 먹이도록하십시요

(라) 뒤간을 자조파뒤지는 못된버릇이잇는개는 큐황제재(硫黃製劑)를 사다가먹이면조습니다

(마) 때때로털을 손질해주고버레니 이가튼것이잇것던잡어주어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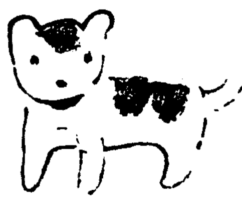
(바) 코물을 흘리는것은호흡기병에걸린것이니 되ー스템파ー라는병이되기전에 취안을시키고 가만이재워두도록하십시요

가정의학

자조까무러처

問 생은 이십우세의남자이온대 작년사월에 별아간졸도한일이잇섯습니다 그후로 각금그증이생기오며 근래에는 소화도잘안됩니다 혈관으로그런지 신경으로그런지 아르켜주십시오 치료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시시오 요사이는 수족이작구파래집니다 (龍仁一讀者)

答 졸도하는증세가 확실치못한고로 무슨병이라말슴키어려우나 가주졸도를하는점으로써 생각하면 단순한뇌빈혈(腦貧血)로만생각하기어렵고 혹시 전간(癲癇)이잇지안을가합니다 이병이면 가정에서 단순한복약으로만 완치키어려우니 내과병원에가서 상의하는것이조켓습니다 聖母病院長 朴秉來



長篇小說 찔레꽃 【77】

金末峰作 金熊超畵

곳은피여건만(八)

저녁을마치고난 경애는 오래간만에 아우들을다리고 인형을만들기시작하엿다 어머니가 별세한뒤로 갑작이 풀이죽어진 영길을여페안치고 붓으로 인형의얼굴을 그리도록 가르처보앗다 경자는 인형의저고리를 정옥은 치마를 그리고 영남은 영길과 가티 인형의얼굴을 그리게하엿다

아이들은다가리 자기들의힘을모아 한가지의사물을 완성하고잇다는것을 의식하엿는지 그어린얼굴들에는 어떤희망과 그리고 기쁨이 소군거리는듯하엿다 유희와 로동을겸한 인형맨드는일은 거의한시간이나 계속되엿다 경애는속으로 정순을 기다리면서 시게를치어다보니 『여덜시십분!』 오래간만에 자기집에를 다니러간 정순인지라 물론 어머니와 싸인이얘기도 만흘테이고 또……경애의 얇은입 술에는가ㄴ다란미소가지나갓다

『지금쯤은 민수씨와만나서 얘기하고 잇스렷다……』

경애가 입속으로 여기까지중얼거릴때 방문이 사르르열리며 정순이가 드러왓다

『정순이ー』

하고 경애가먼저이러서고 아이들도 선생님의치마에 매달렷다

『인제 인형은 그만하자구 그리고 우리맛잇는 과자를먹는다구』

경애는 차단스를열고 빼스켓과 초콜레잇을끄내 아이들에게 적당히 노나준다음

『자 인제 누나는 선생님과 이야기를좀헐테니 너이들은 방으로가서놀아라』

하고 아이들을모두 내보내엿다

『그래 오빠만나보섯수?』

이것이 경애로서 제일먼저 뭇고시픈말이엿다 정순은 고개를 끄덕여보이고 천천히 괴의로가서안젓다

『입회하시겟다구?』

제차뭇는 경애말에 정순은 살랑살랑고개를 좌우로 흔들엇다 경애는 호호호호우스며

『내그럴줄알엇지』

하고 경애는 연방재미잇는듯이 웃는것이다

『어째서 미리아섯세요』

하고 정순도따라서 어색하게우스며 경애를치어다보앗다

『생각하면 알일이지머 오천원을 물리처버린것이나 또이번 경구오빠가 맨드는회에 참예하지안는것이나 똑가튼 심리레니깐……호ー 좌우간 수고햇소 자 과자집어요』

하고 경애는 새로뚝경울열어제친 초코렛상자를 정순아페내밀엇다

경애는 양주(洋酒)가 속에드러잇는 초코렛을하나집어 한끗을 앗작깨물어 홀ー하고 술을마시면서

『좌우간 민수씨는 퍽 훌륭한 남자야』

하고 말끄럼이 정순을바라보다가

『오천원을 발길로 차버릴땐말야 정말 그때만은 항복햇다누』

경애는 딸기가티붉어진 입술을 쫑빨고는

『그래 우리집에는 언제 놀러 오시겟다구그래?』

정순은 무어라고 대답을해야조흘지 잠간망서리다가

『저ー 요사이는 좀바쁘다나봐요 개회때가돼서……』

『참 그러쿤 오늘이벌서 구월초엿세니깐…』

경애는 그의맘속에만 간직한커다란행복이 숨어잇는것처럼 그의가륨한 덕우에 미소가흘러나오는가하면 그는 호ー하고 자지지는듯한 한숨을쉬고ー 반달전에 어머니를일허버린 처녀경애의얼굴은 마치 서리속에피인 한떨기야국처럼 애수와 광명의 교착된 감정이 명멸되고잇는것이다

정순은 자기방으로 오면서도혼자생각하엿다

『경애의태도를 어떠케 해석할가?민수에게 사랑을느끼고잇는것이 아닐까?』

정순은 고개를끄덕이고 혼자우섯다

쾌도란마(快刀亂麻)로 척척 사물을처리하는 민수의성격인지라 아무런 호의도가지지안는 경애에게 꿈에도 동요될염려는 업겟지만……그보다도 경애는 민수를 정순의 정말 외사촌오빠로 밋고 잇는때문에 이러한착잡한일이 생기는것이 아닐까 정순은 자기가 한때의 편리를위하여 민수를 외사촌 오빠라고 하엿지만 형세가 차침 맹랑하게 되여가는것을 느끼자 그는 한시바삐 민수와 자기사이를경애에게 설명하지안호면 안될것을 생각하엿다

정순은 치마를 버서 단스에 너코 집에서 입는 인조조ー셋트로 바꾸어입으면서도경애에게 어떠게 말을해서 경애가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안코도 자기와 민수사이를 알아듯게 할수잇슬까 생각하면서 아이들의 방으로가려고 복도로나섯다

『이제 도라오섯습니까?』

하고 뒤에서 목소리가들렷다 경구다

『책을읽다가 너무재미잇기에 안선생님도 좀읽어보시라고 가저왓습니다만』

하고 제법 술두꺼운책을 정순의아프로 내민다

『감사합니다』

정순은 두손으로 밧지안홀수업섯다

『천만에 그리고 이건원문(原文)인데요 가치대조하여 읽어보시면 퍽재미잇습니다』

하고 또다른 한권을 정순의팔에 안기워준다 정순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하고 책을안은채로 아이들방으로갓다 겁등미레 또렷또렷 나타난 글자는『풀닙사귀』라는 휘트맨의 시집(詩集)이다

살결을본바탕부터 곱고히게만드는

미안료법이발명되엿다

사람의 인정으로 어여뿐것 깨끗한것을 조와함은 물론이나 마 남녀를 물론하고 제일먼저 모양보다 얼굴을 거저 치여다보게됩니다 그러나 갓난 어린애 때에는 누구나 다어여뿐 자체와 히고 고흔 살결을 타고낫섯스나 지금까지그와가튼 살결과 용모를 보존하고 계신분이 몃분이나 계십니가! 그럿타고 이제 다시금 얼골이나 살결을 간단히 뜨더곳칠수도 업슬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분이라도 밧듯이 자기만이 가지고잇는 어여뿐특증——즉 개성의미(個性의美)를 가지고잇스나 그것을 깨닷지 못하시고 다만 남이하는것만 따라서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특증업는 얼골이되고말며 조금도어여뿐 특증을 발견할수업습니다 참고로 한두가지 예를들면 얼골을 남과가티 하게하시려고 분(白粉)、크림、물분(水白粉)을 발려서 화장을하시나 발르섯슬때에는 조금 힌것가트나 조금만 지내면 오히려 아니발르신것만 못하게되고 더구나 얼골에생긴 죽은깨、귀밋、여드름등은 그아모리 조타는 화장품을 발르시드라도 근본적으로는 개이지안호며 살결이 거칠어진것도낫지안흘것입니다 왜 그러나하면 살결이 거문것은 피부의 세포의 색소층(色素層)이 색들어잇스니 즉 색소층이 두러워저 잇슴으로 그럿케 살결이 검게 보이는것입니다 또한 살결이 거칠고 주름이 만으며 얼골에 무엇이 모도 생긴것은 피부면에균이붓헛든가 혹은 피부영양이 충분치못하든가피부의 신진대사 기능이 충분치못한까닭에 그런것이니 그것을 그대로두고 다만 것치장만하야 그대로 더펴두시어서는 아될것입니다 그러면 어저면 조흘가!

活性고로이도硫黃의 美白消菌作用으로 근본료법이되나니 즉 재래의 모든 이종류의 약의결함을 모도 보충하고 더구나 가장유효한 活性고로이도硫黃을 保有한『레온洗顔크림』으로 곳치시면 단시일안에 근본료법이됩니다

여름화장에 주의하자

땀배오르는 첫여름날에는 햇빗에 살결이 더욱 검기쉬우며 더구나 하시는 분단장이 땀에 어우러지가 지기쉬운 때이니 레온洗顔크림으로 하로에 두번씩 三四分의 치료를하시면 약용이 될뿐만 아니라 화장대신이되어 여름 분단장의 걱정을 하실필요가 업게됩니다

처녀시대…명랑한 신여성의 생기와 청춘의 꿈을 어여뿐 얼골에서 찾기위하야

가정부인…시부모 남편 시종에 골몰하시는 사이에도 간단히 집에서 사용할수잇으므로 늘 끈임업는 애교와 매력이 발휘되어 평화한 가정을 일울수잇으며

직업부인…직업상 허는수업이 매일 화장을 하시게되어 분때와 연독(鉛毒)으로 고통밧으시는분은 분에겨른 피부를 청백하게하고 연독을 排泄키위하야

여드름・버짐・죽은깨・기미로 고생하시는분이나 살결이 거칠고 잔주름이 만흐며 얼골색이 거문분은 주저마시고 레온洗顔크림으로 곳처서 자기만이 가질수잇는 어여뿐 자태를 차저주십시요

—정가—普通瓶 一圓四十錢、德用瓶 三圓四十錢

전도 유명한 약방화장품점에서 판매합니다마는 매절되때에는 송료삼십전을 선송하시면 대금인환으로도 송약해드립니다。

무대진정 통지하시는대로조선국문으로된『신가정미안료법』을 어느분에게도 거저드립니다

發賣元 株式會社 レオン商會 東京神田小川町西三丁目 振替東京八八一番

專賣特許・活性고로이도硫黃保有

레온세안크림

レオン洗顔クリーム

少年七月號

七百萬 朝鮮어린이의 唯一한 동무『少年』! 읽어서 고대로 살로가고 뼈로 갈 이 內容!

※이달의主要內容※

・七月七夕(傳說)……金道泰
・中國少年(訓話)……朱耀燮
・코찡찡이(漫畵)……鄭靑羽
・地球얘기(科學)……沈亨弼
・신 발(童謠)……尹石重
・공의노래(童話)……李順伊

◎朝鮮日報社寫眞見學◎ 編輯局 營業局 印刷局 工場……할것업시 大朝鮮日報社를 샅샅치 구경!「少年」七月號 한券만가지면 방에 가만히 안저서 朝鮮日報社속을 다 구경할수가잇다!

少年讀本……수요한

★少年英雄傳—車相瓚
★童謠作曲集—尹克榮
★少年健康讀本—鄭潤鎔

少年作品特選集
▲밀 자(童謠)……趙俊哲
▲진 달 래(童謠)……崔石崇
▲바 람(童謠)……朴光書
▲報德寺(作文)……李明九
▲봄(作文)……李炳璇
▲강 아 지(作文)……金台鎬

漫畵・공일날 漫畵・개고리의피 漫畵・修學旅行 ……鄭靑羽

□少年談話室 □깔깔笑年會 □少年娛樂室 □少年遊戲室 □척척問答室 □少年新知識

■音樂家가되려면……洪蘭坡
■부처님만든얘기……金復鎭
■키다리先生생각……馬海松
■재미나는朝鮮말……崔鉉培

假面 探偵冒險長篇小說! 金來成先生의大力作

三大名作讀物
・호랑이사냥……桂春根
・어머니차저서……蔡萬植
・웅철이의모험……朱耀燮

特別附錄 움직이는그림책 活動寫眞처럼움직이는 신기한그림! 이달「少年」의 特別附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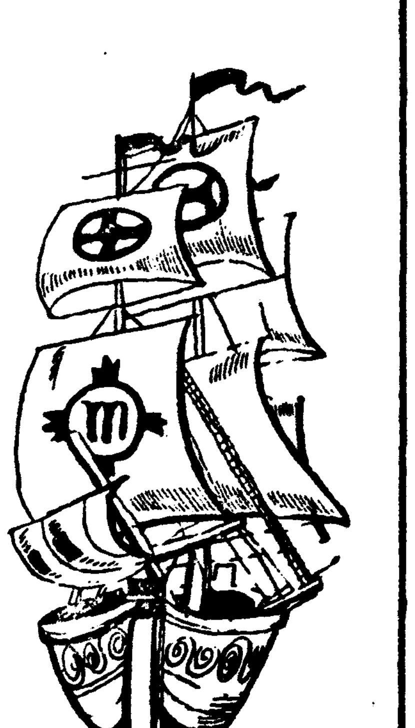
★팔뚝時計다는大懸賞★ 누구나 맞힐수잇는 아조쉬운問題! 一等엔萬年筆 二等엔하모니카

注文은시방곳!

단十錢 朝鮮日報社發行 (振替京城八七八五) 販賣所大募集

學藝

創作方法의 新局面
—告發의文學에對한再論—
❶ 金南天



얼마前에 筆者는 本紙를通하야『告發의精神과作家』라는 一文을 發表한일이잇다。그것은 十有餘年의歷史를가진 이땅의 進步的文學의아페

「新」— 는 創作理論이 賦課하는 價値한 藝術的社會的任務를 提起하고 그것의 具體化의길로서 告發의精神을 指示하기爲하야 企圖하여진 短文이엇다。그러나 筆者가 同文末端에서 말해둔것과가티 筆者는 서우 그곳에서 論述의 結論으로 告發의文學의 提議를 봄에그첫슬뿐이다。우리들의 不幸이 어떠한結論을가지기에 지나치게性急하야 그結論에 到達하기까지의 論述의過程을 輕忽視한것에 잇섯든것이 事實이엇고、우리들의 今日의 思想的混迷와 藝術的逸脫의一部分이 或은 이러한 論述上缺陷으로부터 由來된것은 아니엇든가하는 疑問이잇는것도 事實이므로 爲先 藝盟解散以後의 그文學이 거러온 主要한 思想的文學的傾向에對하야 若干의分析을 前提하지안흐면 아니되엇든것이다。

이러케하야 그동안에 우리들이經驗하지안흘수업섯든 藝術的思想的混迷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社」— 會的根據에 依하야 由因된것인가를 不充分하게나마 볼수잇섯고 우리들의文學이 統一的인方向을 喪失한지 이미오래인것을 히미하게나마 理解할수잇섯다。同時에 우리들의文學을 밝혀주고 幾多의暗礁에서 우리들을 保護하여줄 唯一의燈臺불이될 新創作理論은 無原則한 論爭을 通過한채 하나도 正當히 理解되지안헛고 이것의具體化의方向을 찾기爲하야는 作家는勿論 評論家自身들도 何等의 眞摯한努力이 업섯다는것과 이것의結果로서 今日의푸로文學을 滔滔한勢力을가지고덥고잇는 支配的인濁流는 卑俗한 跛行的리알리즘이라는것을 主要作家의 作品傾向을 들어서 살펴볼수잇섯든것이다。

지금 告發文學의提議의 보다 詳細한文章을 이곳에 가저올려고하면서 筆者는 그러나 前記論文에對하야 釀成된 몃개의反響을 細心히 考慮하지안흐면 아니될處地에 處하게되엇다。勿論 이反響이란것의

「大」— 部分이 前記論文의論述의不充分과 文章의描寫로부터오는것인줄을 알고잇고 그러므로 그러한誤解와 多少의疑心은 이제로부터의 比較的詳細한 文章에依하야 解消되리라고는생각하고잇스나 이곳에 特記하야 大方의理解를엇지아니하면아니될것이 하나잇다。그것은 作家와批評家의對立이라고하는 筆者로서는 全然理解할수업는 問題이다。다시말하면 作家와批評家間에 不和와對立이 잇는까닭에 筆者가 前記論文에서 試驗한 作家諸氏의作品傾向에對한分析은 充分히首肯될수업다는 論旨이다。

筆者는 爲先 그것이 그릇된分析이므로 不滿하다는것이아니고 作家와評家의 對立으로 볼수잇기때문에 誤解된다는 理論에 一驚을喫하지안흘수업섯고 最近에도 屢屢히所謂 不和 對立이라하야 彼此間주고밧고하는 言說이 하나도 理論的이나 文學的 思想的인것에 由來되는것이아니고 些少한感情과

「敎」— 養다툼等에 始終하는것을 보고 啞然하지안흘수업섯다。더구나 이러한 것을 云謂하는 人士들이 多年間『文壇雰圍氣』에저즌 市民的作家이라면 모르거니와 氏等의 擧皆가 푸로文學을 처럿다는이들인 點에 筆者는 다시한번 놀래지안흘수업섯다。十餘星霜의苦難에찬 文學的運動의 體驗의代價로서 어떠한때에 잇서서『對立』이나『抗爭』이라는것이 形成될수잇는가하는 實로 우리理論의 初步知識까지도 제것으로할수 업섯다면 우리들의 過去란 참말로 울어도 울어도씨원치안흘 唾棄할만한 懺悔의 對象일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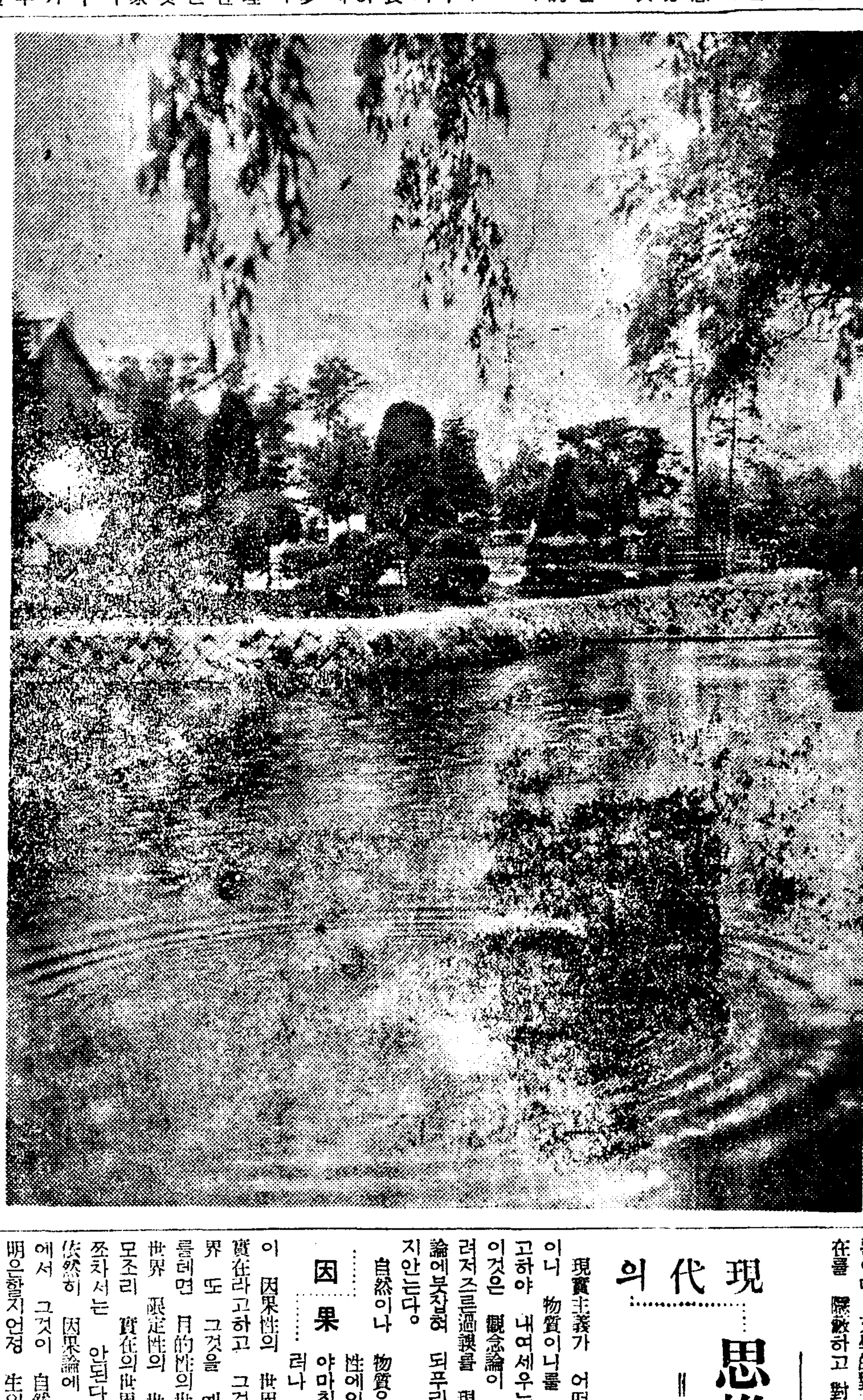
우리들이 過去에가젓고 또한 氏等의부과입으로도 몃百番 들려지엇슬『對立』의理論은 文學的思想的立場의 相異로因하야만 生成된다는것은아니엇든가。原則的으로 批評家와作家의對立이란 잇슬수업다。文學의宗派性의抛棄와 自己批判의缺如가 描寫하는 觀雜한『文壇風俗圖』가 잇슬때름이다。文學的對立의 嚴然한存在를 隱蔽하고 對立아닌것을 對立우에代置할려는 아름답지못한 風潮가 잇슬따름이다。이곳에眞正한 對立이 잇다면 리알리즘에加擔하는 評家、作家와 아이데알리즘에 屬하는 評家、作家와의그것이잇슬따름이다。(續)

漢詩

落花 押春　桐岡 考選

佳作之三　大田府大東町二〇七 金昌洙

飛花滅却萬枝春
紫陌紛紛馬足塵
流水武陵尋路客
狂風金谷墮樓人
盡收甘蜜蜂來倦
仍惜殘香蝶舞頻
亂落猶能供一賞
滿庭紅綿布成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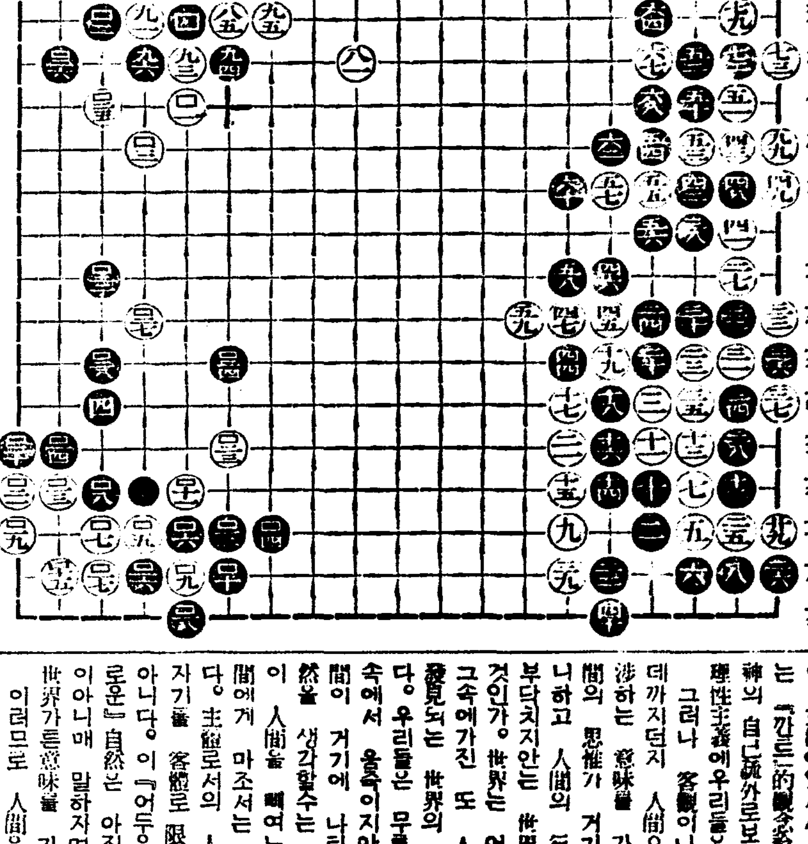
波紋

圍棋對局譜 (8)

本社主催

白 七段 廣瀨平治郞
黑 二段 任佑植

○一三	未의十六
●一四	未의十五
○一五	未의十八
●一六	巳의十八
○一七	午의十八
●一八	辰의十九
○一九	申의十七
●二〇	申의十五
○二一	申의十六
●二二	午의十一
○二三	卯의十五
●二四	卯의十三
○二五	午의七
●二六	未의六
○二七	巳의十二
●二八	午의十三



觀戰記

白이 午未十七八黑서角에 自點一圖는 神奇한衛東이다 黑이未의十六으로 劫을 要하여 自면 勝在誰手를 엇지알리요 白의大勢는 就했으므로 卯의十五로 點을 置하야 中斷思想은 참愴然한方東이다 黑左右兩馬에 活氣充溢하니 白如何制하는 惟願迷圖하노라

現代의 思惟와人間理念
—人間解釋의現實形態—
③ 金基錫

現實主義가 어떠케만히 自然이니 物質이니를 根源的世界라고하야 내여세우는가를 보라。이것은 觀念論이 目的論에이끌려지즈른過誤를 現實主義가因果論에붓잡혀 되푸리하는데 지나지안는다。

因果

自然이나 物質은 이른바 因果性에잇서서 說明되여야만칠지모른다 그러나 그러타고하야 그 이 因果性의 世界만을 眞實한 實在라고하고 그것과마조서는世界 또 그것을 예사는世界 이를테면 目的性의世界 表現性의世界 限定性의 世界가튼것들을 모조리 實在의世界로부터 내여쫏차서는 안된다。現實主義가 依然히 因果論에 머물러잇는한에서 그것이 自然의世界를 說明은할지언정 生의世界 理性의 世界 歷史의世界가튼것들을 理解하게는되지못한다。

오늘의現實主義가 내여세우는 저根本命題를 보아보라。『現實이 觀念形態를 規定한다。』이러케 말할때 이現實이란무엇인가。이때의 現實이란 무론 實在의 世界의 意味를 가저야하고 옴겨와 그들의 이른바 人間의 社會的關係의 總體를 意味해야한다。그러나 現實主義가 어데까지든지 世界를 그現實過程에 잇서서 把握하기를 가르치는한에서 이觀念의 地盤으로서의 現實이란것도 결국은 그자신 부단히 옴겨가고 바꾸어는 現實이 되지안허서는안된다 生成으로서의現實 運動으로서의 現實 現實은 진실로 한순간한순간 자기를 建設하고 破壞하고하는 움지기는 現實이 되어야한다。

우리들은 現實이 본대 움지기는 現實이라는것과 또 이現實이 觀念形態를

規定

한다는것을 現實主義로부터 배운다。그러면 現實이 觀念形態를 規定한다는 見解그自體는 무엇인가 그것은 암만해도 그자신 現實은 아니다。아무리 고집잇는 現實主義者이기로서니 한개의見解를가르처 그대로 곳 自然이요 物質이된다고 욱일길이잇슬까。

오늘의 現實主義의 根本立場을 表明하는 이見解自體가 위선 그들의이른바 觀念形態의意味를 가진다。現實이 본대 옴겨가는現實이요 觀念形態가 모두 그地盤인 現實의 反映인 한에서 現實이 觀念을 規定한다는 見解마저 그자신 現實의 規定을 바더야하고 또그地盤으로서 現實과함께 본대 밧고잇는 現實에대한 밧고잇는 見解가되어야한다。現實主義가 實在를 實在의 世界를 그生成에잇서서 省察한것은 조왓다。또 觀念에대한 現實 主觀에대한 客觀을 反省하고 主張한것은 조왓다。그러나 現實主義는 根源的實在로서 物質을 내여세우는데서 한개의 形而上學에 떠러지고 모두를 因果性의 世界에 잇서서뿐 보려는데서 구차스러운 自然主義에 붓잡힌다。

哲學은 가장 直接的인 事實에서 出發해야 한다。우리들은 내가 사러가고잇슴을안다。내가

存在

속에서 자기를 人間으로 限定하고잇슴을 안다。그런데 이人間이란무엇인고。世界는 무론 人間에 그처서는 안된다。眞實한 世界는 人間을 그속에가진 世界가 되어야한다。客觀이 主觀에잇서서 構成된다고보는 『칸트』的觀念論、自然을 精神의 自己疎外로보는 『헤ㅣ겔』的理性主義에우리들은 反對한다。

그러나 客觀이나 自然은 어데까지던지 人間으로더부러 交涉하는 意味를 가저야한다。人間의 思惟가 거기에 미치지아니하고 人間의 行動이 거기에 부닥치지안는 世界란것이 잇슬것인가。世界는 언제나 人間을 그속에가진 또 人間에게잇서서 發見되는 世界의 意味는 가진다。우리들은 무론 人間이 그속에서 옴츠이지안는 自然、人間이 거기에 나타나지안는 自然을 생각할수는 잇다。그러나 이 人間을 빼여노흔 自然은 人間에게 마조서는 自然은 아니다。主觀으로서의 人間에 대하야 自己를 客體로 限定하는 自然은 아니다。이『어두운』自然이『외로운』自然은 아직眞實한 自然이아니매 말하자면 前自然的世界가튼 意味를 가진다。

이러므로 人間을뭇는 것은 自然을 뭇는것이된다

人間

人間을뭇고 自然을뭇고 이리하야 마침내 人間과自然을 그속에가지는 生의世界、存在의世界를 뭇는것이된다。『칸트』는일직 어떤著書속에서『人間은 무엇을 알수잇는가 人間은무엇을 행해야하는가 人間은무엇을 바랄수잇는가 人間이란무엇인가』의 네가지물음을 말햇다。그리고 이넷속에서 마즈막무름인『人間이란 무엇인가』가 아페무름의 地盤이되는 가장根源的인것이라고햇다。

人間을뭇는것은 그대로 世界를뭇는것이된다。사람들은 存在믓그世界에대하야 여러모양으로 생각해나려왓다。存在를생각하고 神을생각하고 理性과自然을생각하고 自我와精神을생각하고。이리하야 文化의아득한領野에번처 여러모양의見解가 만흔때만흔곳 또만흔사람들에게잇서서 主張되다。이제이하고만흔見解와主張이 그밋바닥에 두개의論理 觀念論과現實主義를가진다고하면 人間의오랜思惟、또여러갈래의思惟는 진실로 이두줄기의源流에잇서서 構成또表現된다고보아야한다。

그런데 이觀念論이나 現實主義는 기실 그자신 人間의 한개態度에 지나지안는다。이러므로 人間의

思惟

의 가지는 一切의 觀念의 世界는 그地盤인 觀念論과 現實主義에로 歸還되고 다시 이觀念論、現實主義는 또그 地盤인『人間에 對한理解』에로 歸還된다。이『人間에 對한理解』를 버서나『現實』에 만난다。『人間에 대한 理解』를 規定하는것은 한개現實로서의 人間의 實存이 되어야한다。

이 이른바 人間의 實存이란 무엇인가。人間은 무엇에잇서서 自己를 한개의 現實的인 存在로 限定 또 主張하게되는가。

一夏日雜感二 脫帽主義者 (二)
嚴興燮

『자넨 왜 아무것두 안집나!허다못해 갸라메루라두 뒤ㅣ갑집게나!』

民村과 宋에대한 분푸리를실컷이 尹에게 해부친나는 事實 尹보다도 먼저 일음조흔『人蔘갸라메루』를 두어갑집엇다

마루우에 麥酒병을 주ㅣㄱ 나려노앗다

『얘! 또가서 一打만더가저와!』

정녕宋의 音聲이다。

『아! 구만두어 열두병이나 잇는데 이걸 누가다먹을나구 그래!』

民村이 맛는다 그러나 그 가항으로 辭讓일理업다고 느꼇든지 尹이 벌컥 골으며

『한打는 내가 먹을래야…』

하고 氣勢를 뽑내는 宋의얼굴을 옴팡눈을직 흘겨대면서

『아ㅣ니 그래 嚴허구 나허구는 不酒黨이라구 빼돌리긴가?』

하고 톡쏘곤 심부름온 아이에게

『얘ㅣ 가서 麥酒잇는대로다드려온!』

하고 豪氣를 편다。

갑자기금믄 술상이라곤 간소메 멕둥 땅콩과 스르메찌저논것밧게 업다

酒黨에게는 안주가 必要치안헛든지 民村、宋、白鐵는축ㅣ축ㅣ 達달어 드려 킬킬尹과 나는 한잔에 샛빨개올나온 얼굴을 서로 처다보면서 안주事讓을 始作햇다 麥酒一打가 물리가린 날는자 宋은 마루끄트로 나서서 가게 主人을 高聲으로불러재치더니

『왜놀을가! 생각해봄쇼!』하고 暗示만 던젓는데도 不拘하고 얼마안돼 麥酒一打가 配達되엿다。

陰曆으로 정녕 十六、七日날밤이엿슴으로 달은 몹시둥글다。장마가끗친뒤의 달이라 가을 달처럼 한껏맑다。푸른 달빛은 마루끄테 처마그늘을 더젓다。

울타리 미트로 흐르는 개울물소리 잇다금 어느풀포기에선지 나무닙 에선지 가을도아니엿만 버레 우는 소리 가들린다 實로 서울市內바닥에선萬金을 주고도 사지못할 凉味風趣의것이다

麥酒병은 漸漸負傷兵이되여 마루바닥에 KO가된다

君과나는 勿論量이 적엇지만 質에잇서서는宋、民村보다 問題업시 大醉해버렷다

암만해도 麥酒가不足한는짐이업지안라 그러나또 가게사람을심부름 시키기는싫라、큰理由는작구외상갑시 느러가기때문이다。

나는 선뜻 防酒策을생각해냇다『民村、點자백이나 한마디합쇼 그러나 民村은 아직 노래가 나올만큼은 술이 不足 이라는듯이 態度가 자못頑强하다 나는 第一의手段을 講究햇다 그 第一의手段때문에 나는지금 脫帽로 다니게 되엿는지모른다

그第二의手段이란것은 多少델리케ㅣ트한 內容을가진것이다 그때웬일인지 尹도 民村도 깨끗한 새맥고모자들을 사쓰고왓섯다 宋만은 내이웃이니까 脫帽엿지만。

새로산제 不過二三日밧게안돼보이는帽子라 民村과 尹은 麥酒甁과는 距離를 유달리도 멀직이 해노코 잇다금흘금거리며 帽子들을 監視를 하는 눈치다 이것은 나의主觀的觀察이엿슬는지 모르나 어쨋든 醉中이엿스나 또렷이 그것을 느꼇기때문에

『여보게宋 저尹맥고모자 구멍뚤세……』

하고 宋의귀에다소군거렷다。가장 적은소리인데두 不拘하고 벌서눈치 채인것은 民村이엿다。

그러나 亦是시침잘떼는 宋인지라 내煽動에 急作스럽게 서들리곤 하엿다。

宋은 담배를한개 피여물고 便所로나가는체 일어슨다

宋이 便所에간뒤 民村은 빙그레웃으며 自己모자를 웃洋服위로 더퍼치운다。

宋은 한참만에야 便所에갓다오다가 尹의 옷저고리 우에잇는 尹의 帽子를 집어들고와 泰然하게 주저안즈면서 精神업시 쓰러진 尹의 머리마테서 빈 麥酒甁을 노피들어 痛快하게 亂打하자

『펑ㅣ』하고 爆音을 울리며 悲慘한 最後를 告한다。이瞬間大驚失色하고 벌떡일어난것은尹이다。

이瞬間 누구보다도 暴笑를 演出한것은 被害를 버서난民村이다。

그러나 事件은 實로微妙하게도 橫厄을當한 不運의 맥고모자는 尹의것이 아니라民村의것이엿다。

잠간 尹의 洋服우에 잘못宿所를 定햇든罪엿다。

事件은 비로소 至今부터가 本格的興味를끌고나간다。

新刊紹介

▲專賣の朝鮮 七月號 發行所 朝鮮總督府專賣局內 朝鮮專賣協會 振替京城一三八三六番 定價卅五錢

▲京城敎育情報 第十六號 發行所京城府臥龍町一三九 京城敎育情報社 振替京城二六六五九番

▲佛敎 第五輯 發行所 京城府壽松町四四 佛敎社 振替京城五四八二番 定價廿錢

▲가톨릭朝鮮 七月號 發行所平壤府館後里 가톨릭朝鮮社 振替京城一五五九七番 定價十五錢 送料一錢

▲鑛業時代 第三輯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一의二九 鑛業時代社 振替京城八九三〇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慶北老會敎會報 第一三一號(月刊) 發行所 大邱府南山町五 慶北老會敎會報社 振替釜山八七八七番 定價一部五錢

▲朝鮮銀行統計月報 三月分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一一〇 朝鮮銀行 定價五十錢

▲國民法律 七月號 發行所 東京市芝區二本榎一ノ四七 國民法律社 振替東京一六七六六番 定價十五錢

▲新興佛敎新聞 第二〇四號(月刊) 發行所 東京市豊島區雜司ケ谷町一ノ六〇 佛旗社 振替東京五三七〇一番 定價一部五錢

▲ローマ字 七月號 發行所 東京市麴町區丸ノ內三丁目一二 ローマ字いろめ會 振替東京六一一番 定價二十錢

부인병때문에 사랑과 靑春을 일코 쓰라린 세월을 보내시

는분! 帝大病院서 쓰는 와세돈球로 치료하여 근치식혀버립시다

實驗報告

『와세돈』의 힘으로 倍前한夫婦愛를어더

(光州) 玄英淑

結婚한지五年을 지나도록 子息을엇지못하야 시부모께뵈올낫도업고 뿐만안이라 남편은 늣도록소생이업서 매사에화안내고 밧출입이 잣드니 드듸여 소생보겟다는 명목하에취첩까지해놋코 낫에만 단녀가고 밤이면 매일밤갓치 독수공방으로 소생업는서름이자심하던 생각을하면 아모效力도업는 약을長服하면서칠성단 모서놋코 새벽이면 일직이 일어나서 공손하게 정성드리곤하는생각을하면 지금와서 돌아보년어리석기도하고 또하면 분하기비할바업섯습니다……두번보내주신 고귀한명약『와세돈球』로서 이럿든 쓰라린서름은 봄날의 눈녹아버리듯이 사라지고서 벌서달달이잇든 경도가업는지가 二個月이나되엿으로 病院의게診察을바다보앗드니 틀님업는수태라고하며 집안식구들도 모다큰慶事라고喜喜樂樂하고 더구나男便도 近間에는밧출입도 도모지안케되고 되도록 조중한일을말고 몸을冷하게하지말나고야단입니다 그리고취가하엿든소실도 원단히돌녀보냇다고하며전과는 판이한 남편의사랑에놀내고잇습니다 지금은喜欣之中에 다만산달이빨리오기만고대하고잇습니다 姙娠中이라도連服할작정이오니 그에對한注意를下敎하시와 三十六日分만더보내주시기바랍니다

冷症이낫고 姙娠까지해

(鄭山) 李正實

(前略) 여름이되면 더욱심하야 허리가 냉하고 압허서뽑아내듯이 말못할 辛苦를해오든제가 冷症이낫고한가지로姙娠까지하야 어깃빵이야말로비할데가업습니다 一時는 內服藥 坐藥할것업시 약이라는약은 모조리 먹어보앗스며 아래배를을뜻뜻히 하기에도퍽주의하엿스나 아모差度가업고하야 이症勢는 永永낫지안는것이로구나 하고생각된 그때의슬품이야무어라고 이로사를수업섯습니다(中略)知人의게『와세돈球』의實驗談을 듯고도 그것도 다른약과맛찬가지겟지하면서도 햇여나하고 使用해보앗드니 아래배의압흠과 냉증이 아주 경하여지고 그악취가심하든 대하물도 점점업서저서 心神이輕快하여젓습니다(略)그리하야여 기에『와세돈球』에 對하야 感謝하마지안흐바이옵니다

다음과가튼증세의분은 와세돈球로곳낫습니다

아래배 아픈것 — 아래배와 허리가 쑤시고 아프며 진땀이 흘으며 월경때면 신열이나고 더욱아퍼서 메칠식 눕게되시는분 월경이고르지못하고 월경의분량이적엇다만엇다 하는분들 두통과현기가심한분……

대하증 — 처음에는 코가튼것이나오다가 차차 色이돌며 악취가나게되고 자궁이 몹시아푸며 오줌이자즈며 국부가쑤시고 절니며 가려웁고 열이나는분……

눈거미 — 머리털이 몹시빠지고 버듬이만허저서 몸시가렵고 얼골에 잡티가생기며 눈거미가생기고 살결이것칠어지는분……

자복업는분 — 결혼한지二、三年이되어도 어직것 어해를배지못하시는분、부부화합에 고통을늣기며 자미를모르지는분、류산하시는분、사산을하시는분……

이상과가튼 증세가잇는분은 조곰도주저마시고 와세돈球로치료하시면 무슨약보다도 속히근치되오니 중한분은 하로에한개식 경한분은 이틀에한개식이면족합니다。재래의거무빗나는 넷는약처름거무물이흘러내리든가 나오는법이업고넉키에 도조곰도이상한기분이도지안흐며 남몰래지럽에서도 유명한병원치료와똑가튼효과를 어데서 단시일안에 근치되는약입니다

부인병이곳낫는 와세돈球 帝國大學病院婦人科使用

약한개三分間이면 치료효과가 나타나는 부인병근치약『와세돈球』는 각지에잇는帝大病院 赤十字病院을위시로 유명한병원에서 현재매일수만은 환자를 구원하고잇는 의사전문약을 처음으로민간에 제공한약인만큼 그신용과 우수한효과는 더말삼드리지안어도 잘아실줄밋사오며 본보애독자에 한하야 우표삼십전을선송하시면 남어지송료를부담하고 대금인환으로도송약해드립니다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河原商店 振替東京三五〇一九番

약가는 十二日分ㅣ一圓二十錢 廿四日分ㅣ二圓三十錢 三十六日分三圓四十錢(病院用百四十四日分十三圓)이며둘지하시면부인병치료서』를거저드립니다

いまは皮膚病のはやる時

新綠을이루는때나 무썩이쑥쑥빼더나 듯이부름皮膚病이 무서운氣勢를올리여流行함으로 단단한注意를 해야한다。

가렵고! 흉해!

皮膚病은 그대로버려두면 全身에 퍼짐으로 早速히『一二三』(히후미)로 治療해야한다

『一二三』은優秀한 끈끈한藥인故로、藥效가 持續的으로 浸透하야 深部의黴菌을죽이는效果가 빠른皮膚病藥이다

主效 — 쇠버짐、옴、무좀、태독、마른버짐、어루레기、옴、부름、땀띠、진무른대、濕疹、頭瘡、切傷、火傷、구두에진물은데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各地藥店에잇다

一 히　二 후　三 미

皮膚病退治의 外用常備藥

HIFUMI　一二三 實効散本舖 東京市神田區明神下 師岡天然堂 振替東京一三七二番

NO4

感氣는萬病의因!

感氣인줄알엇거든 얼는實効散의効力으로輕한때에治하야한다

感冒解熱特効藥 實効散(효산)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三圓 五圓

全國藥店에잇

本舖 師岡天然堂 振替東京一三七二番

カルピス (칼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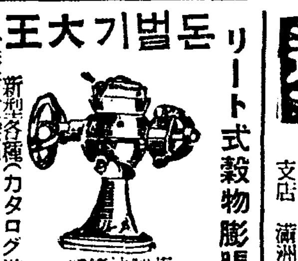
시원한맛으로健康을도읍는故로中元에는絶好의

二瓶 보내면 十四瓶 보낸것이되는 萬人嗜好의中元!

七倍로타서마시는 滋强飲料

美麗한二瓶入 進物函잇슴

돈벌기大王 リート式穀物膨脹機



米五合의米가八升의菓子가되는

新型各種(カタログ進呈)

大阪市東淀川區本庄西通一 兒島製作所 (電話北五一八九番)

工業指導

小資本으로누구나할수잇는各種工業을敎授하며規定書二錢郵票封入請求하면送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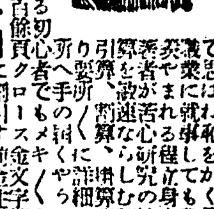
「工業用藥品·釀造用品·化粧品原料·菓子原料·各種芳香料·色素及染料·漢藥及賣藥」販賣商

京城府蓮池町七七 日光社工業部 振(京)二五三三番 支店 滿洲吉林省

恩給 五年分以上低利立替 術償借替歡迎 內書進呈 京城府中學町一四 金貸商會 電話(光)二七五八番

▼そろばん下手では出世が出來ぬ

新式速成 珠算獨習の秘訣



▲圖解で上達の極意公開!タッタ七日で上達する

▼如何に讀み書きが上手でも珠算が下手では折角の出世も……

本書は四六判三百餘頁 特價一圓 景品進呈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 現代出版社 振替大阪五六〇一四

商標 仁川花水町 都賣商 天一製粉工場 價格表 見本品 進呈

明るくて永くもつ 名實共に日本一

日本乾電池

高砂工業株式會社

森永ドライミルク

모리나가 도라이밀크

牛乳보다消化가잘되는

母乳와同成分으로消化가잘됨으로愛兒는健全하게살이올읍니다 또한녀름에腐敗할慮念가업서퍽便利합니다

賣行은全需要의七割을占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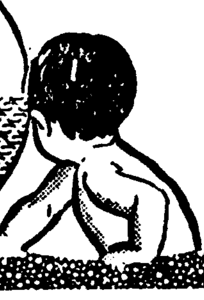
森永製品朝鮮販賣會社

松澤ホーサン石鹸

松澤호ー산비누 本邦唯一의 호ー산名有비누 內務省東京衛生試驗所證明인 定價分析表希望者에게送呈함

醫療用 · 松澤호ー산비누도머리분의 살결을 愛護하여 주시오

一匣마다器待券을封入하얏다



東京神田多町一 松澤商店

イカリソース

이가리 소ー스

日本一의産額 日本一의信用 日本一의品質

朝光 七月號

鳳山탈춤座談會

出席人士……宋錫夏·孫晋泰·李鍾泰·李東헉·韓相健·羅雲善·金辰玉·金景鍋·金確實·嚴香珠·金眞淑·李恩求·李相南……本社側……咸大勳·盧子泳·玄仁圭

金買價引上과朝鮮産金業——張元俊

物價騰貴와國民生活 朴用來

外國領事館通譯生活記

米國領事館三十年……申鳳休

風雲變轉中國領事館生活……金佑行

佛國旗아래二十七年……李鍾燁

싸베三自堊館十三年……金東漢

定價四十錢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 發行 振替口座京城五八七八番

詩의페이지

◆孫乭의昇天……卞榮晩

◆谷……金珖燮

◆글……金東鳴

◆바다ㅅ가風景……李應洙

◆SEA BREEZE……金光均

◆길……林學洙

◆瞑想의 幅……李應淑

在京外國人學校의午前……齊波生

今古 諷刺諧談珍談……靑吾

福城君哀話……翠雲

野談 初夜夢……申鼎言

實話 惡魔主義者의告白……高飯鳥

朝鮮의怪奇人物……車相瓚

日本政局의前途 咸尙勳

朝鮮의名山巨刹 文一平

朝鮮女流詩選……李殷相

非評人의抽辯……李軒求

各國의靑年運動……編輯室

李寅善獨唱會……任東爀

話題의世界情報……一記者

映畫의原作問題……徐光霽

伊太利音樂의特質……金管

社會事業家金鍾翊氏의人物……又夢人

音律界權威河圭一翁의長逝……咸和鎭

朝鮮의金融統制 李健赫

癩病療養所探訪 金甲洙

放浪生活四十八年……劉楚詩

延專學園秘事 Y·W·S

二大連載長篇小說

川邊風景……朴泰遠

無風地帶……咸大勳

七月의創作

短篇小說 少年行……金南天

短篇小說 아씨와안잽이……尹基鼎

中篇小說 夜宿……姜鷺鄕

戲曲 길……金鎭壽

探偵小說 일어진寶石……金裕貞

京城大建物大工事側面史

中央基督靑年會館 漢江人道橋 天主敎堂 京城驛

中部版

船賃과 勞賃을 横領逃走한友人

【仁川】 인천부화평정(仁川府花平町) 사백이번지 렴은죽(廉銀竹)은 그의친우 만석정(萬石町) 김천수(金千洙)와 서두성(徐斗星)의 선임(船賃)삼십여원과 인부임(人夫賃)이십여원을횡령하야 자전거까지가지고 도주하엿다하야 피해자들은 인천서에수색원을 제출하얏다한다

아직도正確치못한 遭難者의定員數

森信汽船會社側과 遭難者의主張이相反

仁川永宗島覆船事件複雜化

【仁川】루보=인천근해 영종도(永宗島)에서 삼신기선(森信汽船)갑제환(甲濟丸)전마선 전복된 사건에대하야는 루보한바와갓거니와 조난자의수효가 회사측과 조난자측의 주장이 전연부합되지안는다 회사측주장에의하면전복당시에 전마선 선객은 십오명이라하고 조난자측의 주장은 이십팔명을 일시에 태우랴다가 맛참내 불상사를 일으키엿다하야 맛참내 인천서에서는 그진상을 규명하고자 고수(高須)부장이 선부 구룡군(具龍君)을대동하고 현장에 출장하야방금엄중조사중이다 이에 조난자측의 주장에의하면 게두포(鷄頭浦)에서 칠명이 영종(永宗)표를사라고하얏스나 최근점에서영종으로 오니인천(仁川)표를사고 영종(永宗)에서나리라하야 부득이 인천표를 일곱명이사는바 구조는한명밧게못되고 념성리(念城里)에서 십오명이승선하야 그중십명이구조되고 초지(草芝)에서 륙명이 승선하얏스나 그중일명이구조되얏다는바 이를 종합하면 승객이 십팔명중에 십이명이구조되고 십륙명이 행방불명되얏다하야 쌍방의주장이 전연다를뿐아니라 구조인원이 치료를밧는 치료비까지 문제되야잇다는바 쌍방의 의견을듯건대 다음과갓다하야 그추이가가장 주목된다한다

遭難者 韋顯魯氏 談

선객이십오명이라고요 이는전연거짓말입니다 일행이대개금팡동무임으로 제일행은 확실이알수잇서 이십팔명이 틀림업습니다 그리고 구조된십이명이 치료를밧는치료비까지 선객의잘못으로전복된것이니 물으겟다하니 이런어굴할도리가 어대잇습니까광부들은 푼푼이모앗든돈과의복일체를떼내려버리고 생명만구조되얏는대 위로금십원씩줘주니 이런무도할데가 어대잇습니까 우리는어대까지 회사측과 항쟁하겟습니다 운운

救世醫院 朱榮善氏 談

우리병원에서 치료한것이사실입니다 치료비를회사에 말하얏드니 이는선객의소동으로 일어난불상사이니까 물으겟다함으로 하여간치료한것이니 지불하야달라고하얏습니다 운운

森信會社專務 金鍾燮氏 談

회사측으로부터는 이런불상사에대하야 성심으로늑기고잇습니다 선객이 이십팔명이라고하니 전마선(傳馬船)은 전기인원이다 스지도못할뿐아니라 그중에도수명은 인천에서나린 선객일백사명에섯기여잇서 결국행방불명된 인원은 일이명에 불과할것입니다 치료비로말하면 회사측과는 하등교섭이업시한것이니까 모른다고하얏스나 될수잇는대로 지불하라고합니다 운운

佐伯京城府尹 九日朝初登廳

좌백신임 경성부윤은 구일오전중에 초출청하엿는데 정오에 부청신문기자단과 회견하고 다음과가티 처인사의 이야기를하엿다

칠십만이나되는 만흔식구를포용한 대경성의 살림사리를미약한힘으로 잘감당하여 갈수잇슬는지 의문이나 될수잇는대로 힘써 배워가면서 일을하여가랴한다

더욱이 행정방면에는 아직지식이업슴으로 하루동안 공부하여야될줄로 생각한다 인사이동은 지금당장에는 무엇 쇄신 고 언명할수는업스나 쇄신필요를늣기게되면 단행하게될는지도 알수업다 경기도청에서 경성부청으로 옴겨왓슴은 이고 가튼경성부내임으로 전근한 기분이 별로업다

工場進出에備하야 仁川海岸또埋立

約三百萬坪의基地는充分

【仁川】작금인천을 중심으로하야 일본내지로 부터 연속부절이진출하고 잇는대공장은 방적(紡績)으로 부터 각종 중공업(重工業)에 일으는 대공장의수효를 세일수업슬만콤되야 남북해안의 수십만평 매립지도 발서 그 부족을 늣기게 되야또다시 공장 지대를 부당국자들은각방으로 물색중이든바 뜻하지안흔곳에서 삼백만평의대공장지대를발견하얏다한다 이는현묘도(猫島)(굉이부리)로부터 주안(朱安)에 일으는 해면을 매립하면전후 사십두만평의 기지를것게될뿐아니라 마주편 서곳면(西串面)의 연안가사지와 부근일대를 편입하면 적어도 삼백만평의 공장지대는 무난하다는자신을엇게 되얏다 이외한가지 이후로 오랴는공장은 아모리 대규모의 공장이라도 기지의부족은 업다는 공업인천의 명랑한 '뉴-쓰'가되여잇슬뿐아니라해륙(海陸)양면으로 뻐치여나가는 인천의 발전상은 실로국제무역항으로 손색이업스리라한다

自轉車窃盜盛行

【楊州】고양군 숭인면 장위리(高陽郡崇仁面長位里) 박범마(朴範馬)(二二)는 지난사월부터 경성상업은행 조선은행 또는 경성운동장등 아메노인 자전거를 닥치는대로 훔처다가 의정부(議政府) 자전거포에 매각하다가 발각되여 방금 양주경찰서에 체포되여 취조를밧는중이라는데판명된 자전거만 여덟개라한다

就寢中의壯年 벌거벗고潛跡

【仁川】사십장년이자다말고 끼여든 금반지까지빼어노코 벌거숭이로업서젓다는『그로테스크』한사실=인천부율목정(仁川府栗木町)에대사십오번지 배동화(裵東福)은 지난오일 오후십시경에 평상시와가티 자기방에 들어가 취침한후 그잇흔날아참에밤에자든배씨가 자리에 업서젓슴으로 가족은괴상히생각하고 변소를 위시하야 집안전체를통하야 차젓스나 종시그종적을 알길이업섯다 이리하야 그에누엇든자리를 조사하엿든바 이상하게도 무명지(無名指)에 끼여든 금반지까지 빼어노코 심지어내의까지 벗어노코 행방이업서젓다는 근대에듯기드믄 사실이잇다한다

鄕土美術展覽會

松京學友會의主催와 本報開城支局後援으로

【開城】방금동경에 건너가서화술을연마하는 개성청년들의 친목기관으로 조직된 송경학우회(松京學友會)에서는 귀향한금번여름방학을 리용하야 본보개성지국후원하에 향토미술 전람회(鄕土美術展覽會)를 개최키로된바시일은 오는십륙일 십칠일량일간이라하며 장소는 중앙회관(中央會館)이라한다 그런데 전기 전람회야 말로 개성 서는 일즉이 볼수업든 현란 무비의호화판으로 미술의 극치를 보힐것인바 우선 여기에 출품작가중 맷분만 소개해보건대 동양화(東洋畵)엔 삼형제 화가로 일홈이놉흔 미산(美山) 황종하(黃鍾河) 우석(友石) 황용하(黃完河)우청(又淸) 황성하(黃成河)씨의 제작이 출품될것이며서양화(西洋畵)론 금춘 동경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금의로 환고향하야 이번 선전(鮮展)에 특선된 천재화가 김인승(金仁承)군과 그외 심형구(沈亨求) 공진형(孔鎭衡) 박광진(朴廣鎭)씨등의 대가의작품도 출품되여 일당(一堂)에장식될것이라하며 또는박을욱(朴乙郁) 김주경(金周經)양등!귀수작가의 재치잇는 "편물" "자수"도 다수출품될것이라는데 더욱이 색비단을 쪼각보로모흔 김재순(金在淳)군의 백화(帛畵)와 김경승(金景承)군의조각(彫刻)등은 단연 이채를 보일것으로 륙만부민의 기대는 실로절정에 달해잇다한다

甘蔗知事初登廳

경성부윤이든 감자의방(甘蔗義邦)씨는 껑충뛰여서 경기도지사의 자리를 차지하야 구일오전여덟시반에 초출청하엿다 그리하야 동아홉시경에는 경기도청회의실에 청원들을 모아노코 착임제일성으로 훈시를하엿다그것이끗난후 동아홉시삼십분경에는 지사실에서 도청출입기자단과회견하고 대략다음과갓치말하엿다

동일한경기도내에서 더구나경성에서 부청으로부터 도청에 옴겨왓스니 별로신기할 것은업스나 책임은 더욱 무거운 늣을 통감합니다 압흐로는 도정(道政)을 현임두하야 가능거니와 우선농산어촌(農山漁村)에 대하야 전폭적 노력을하야 백성으로하야금 의식(衣食)이풍부하게하랴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경기도는 정치 경제 교육의 중심지대로서 조선의수부이거니와 특히 선만일여(鮮滿一如)의대동맥지대로부터 경인일대(京仁一帶)를 공업화하야 경기도로하야금 명실상부하는 산업도(産業道)로 맨들고자합니다 여러분의원조를바랍니다

年産十萬貫을目標로 鷄卵生産의倍加運動

京城府內一千二百五十戶의養鷄業者로 組合을創設코積極的奬勵

경성부권업과(勸業課)에서는부내에잇는 일천이백오십호의 양계업자(養鷄業者)를 한뭉치로만드러 양계조합(養鷄組合)을조직하야 계란생산배가(鷄卵生産倍加)운동을 이르키고 저방금 그준비를 하고잇는중이다 현재경성부내에서소비되는 계란은 일년에삼십만관(貫)인데 이가운데서 십만관은 일본내지명고옥(名古屋)기타각지로부터 이입(移入)하여오게되는것이며 십오만관은 경기도내각군으로부터 모혀드는것이고 부내에서 생산하는것은겨우오만관밧게 안되는터이므로소비량의전도를 자작자급하기까지는 창출히 바래기 어렵나하드라도 현재생산량의 배인십만관가량은 증산할가능성이 잇스므로 적극적으로 배가생산의 장려를하는동시에 일반의부업(副業)으로도 만히장려시킬방침이라한다 그리하야 너무비싼계란갑을좀헐케사서먹을수잇도록하게할터이라한다

都市의오아시스 府營釣魚場 京城刑務所아페計畫中

감자(甘蔗)전경성부윤은 경기도지사로 전임하는길에 경성부내에는 부민의오락장소가 업슴을 유감으로녀기고 도시계획계(都市計畫係)에부탁하야 경성형무소(刑務所)압침수지(浸水地)삼십정보를 이용하야 낙시터(釣魚場)로 설비할계획을 하게하엿다 이것이 만약실현되는날이면 조선에서는 처음으로『부영(府營)조어장』이 생기게되는 세음이므로 고기낙기를 조와하는 사람들에게 한가지 흥미를 끌을 화제로되여잇다

開城에洋靴窃盜

【開城】본적을 철원(鐵原)군에두고 일정한 주소가업시 떠도라다니는 김길동(金吉東)(三)과 부내경정(京町)이백구번지사는 김선봉(金先鳳)(一九)은 공모하고 지난오일 밤십이시경 남문통중앙양화점(中央洋靴店)에 침입하야 단화 두켜레를(시가십오원)절취해다가고만경찰에발각체포되엿다

衛生施設도緊急 工場進出을制限

共同墓地의新設도陳情키로

(4) 京南發展座談會內容

六、衛生施設에關한件

記者 衛生施設에對해서 우리南部는 京城府로編入되지 一個年以上이지나엿스나 너무나不備한點이만습니다 管轄하고게신 黃部長말슴하여주십시요

黃部長 우리西氷庫駐在所管轄만말슴하여도 不潔하기 짝이업습니다 첫제로 豚舍養舍가만흠으로 처음와서 豚舍를調査하여보앗드니 大端히 不潔하야 總代와 議論하고 될수잇는대로 淸潔하게 養豚하도록注意를하야 七月부터九月末까지 豚舍를 規定대로改修하지안흐면 아니된다고하엿습니다 府에서 養豚舍改修하는대 一舍에對하야 一圓三十錢式 補助費를 주기로하엿습니다그러나豚舍가不潔하다고 나로서는 養豚을하지못하게할수는업슴으로 衛生上 防害되지안는 限度에서 適當한 處置를 하겟습니다。

林翊相 우리 漢南町은 豚舍가 百餘군대나 잇서서 豚舍가잇는 隣家까지 惡臭로 不快합니다 그래 豚舍는 養豚하는사람들끼리 共同的으로 만흔 豚舍를 飼養할수잇게하야 一定한 場所로 모호면 조켓습니다。

白承煥 첫재 便所를 改良할必要가 잇습니다 웨그러냐하면 人糞이 道路로 流出되여 衛生上으로 여간 不潔한것이아닙니다

黃部長 참 大端히 不潔하더군요 今年에는 可及的流出만이라도 못하게하겟고 來年부터는 府에서 人糞桶을 分配하야준다고하엿스니 經濟力이잇는사람은 購買하도록하고 貧寒한사람은 그저 주겟습니다。

記者 醫療機關에 對해서 말슴해주서요

林翊相 漢南町은 醫療施設이라고는 하나도업습니다 洋醫도 醫生도업서서 死亡診斷書를내려면 大端히 不便한點이 만습니다 現在 京城府 會議員 朴元信氏가 醫師 이면서 開業을하지안코게시지요 急하면廉恥不顧하고 夜半이라도元先生을차자보고 갑금急한것을免하지만 돈도밧지안코시고施療하여주시니 작고하여달랄수도업습니다

成俊德 梨泰院町은 某病院出張所가잇섯는데 收支가맛지안는다고 한달도못되야갓습니다

張英煥 普光町도亦是醫療施設이업습니다 東西氷庫町은 醫療施設이잘되여서 딱한때는어겟습니다

李醫師 네設備가不完全하야못그럿습니다

七、住宅區에工場新設 制限의件

記者 이問題에工場新設이라는것은特히精米工場이 늘어가는傾向이잇슴으로 提案한것인데西氷庫와東氷庫는住宅區가아닌가합니다

朴震澤 工場가튼것이잇서야 景氣가조화저서 勿論發展을促進케됩니다

殷亨柱 암 그럿치요 그러나될수잇는대로 勞働者를 만히使用하고 騷音과 煤煙가튼것이나지안는 工場이 新設되는것이 매우조켓습니다

林翊相 우리漢南町에는무슨工場이든지 만히施設되엿스면 조켓습니다

白承煥 우리東西氷庫는 다른都市에 比하야 結核病者가 만흔것이 精米工物이 잇기때문이 아닌가합니다 따라서 既設工場은할수업스나 압흐로 新設工場만은 制止하야 住宅區로發展식히는것이조켓습니다

金相哲 既設工場이라도 可及的塵埃와煤煙이、날이지아니하도록할것입니다

八、火葬及埋葬에關한件

記者 火葬及埋葬에對하야 非難어만흔데 忌憚업시 말슴해주십시요

張英煥 漢芝面當時에는 埋葬地가갓차움으로 不便을늣기지안헛스나 墓地가玉水町으로移轉해서 不便햇는대 只今에는그곳조차 使用치못하게되여 더욱不便이甚합니다

林相翊 火葬에는從來와가티 問題업지만 埋葬에는 東小門外共同墓地로가게되니 우리南部는 近接地로設置하도록하는것이조켓습니다

白承煥 第一小兒가죽으면診斷書내기도어렵고埋葬하기도困難입니다

張英煥 林總代가말슴한거와가티共同墓地를新設한다면 廣州郡이나 始興郡이適當하다고생각합니다

朴震澤 場所로는始興郡新東面이適當합니다

林翊相 그곳도조코나 廣州郡彦州面이 더조흘줄압니다

成松 火葬에잇서서는 從來와맛찬가지임으로 問題가아니지만 埋葬에잇서서는 近接地를選擇하야 墓地設置를하여달라고陳情하면될줄로압니다

記者 그럼 陳情한번하시겟서요

一同贊成

記者 이問題도町聯合會와記者團에서해보겟습니다 그럼議案이 全部끗이낫습니다 其他로들어가서 말슴하여주십시요

其他諸般問題

林翊相 町會費徵收에困難이만흔데 조흔方道가업슬가요

李時潤 참 그問題를 어떠케햇스면 조홀지몰으겟서요

林翊相 이困難을免하랴면 告知書를 發送하는것이 조홀것갓습니다

張英煥 府의納稅에添付하야 納入케하고 府에서갓다쓰는것이 第一조흔方道일것갓습니다

記者 南部方面에 入學難은어떠가요

張英煥 夜學을도잇고하야 다른곳에比하면 甚한困難은 업습니다

朴震澤 웬걸요 西氷庫普通學校에 今年入學難이 大端하엿습니다

張英煥 梨泰院부터鍾城町으로가는自轉車가 한번간지나가면 지가나서 한五分間은 아페갑갑하야 通行할수업게되니 무슨對策이업슬가요

殷亨柱 撒水보담 小石을갈어달라고하지요

記者 南部는十五萬人口를가젓스나 大衆的으로集合할場所가업스니 公會堂하나 建設할意向은업습니까

張英煥 現在富商한問題가만흔데 그런것까지할수잇나요 今日討議案만 爲先圓滿한解決을하면 그亦問題는업지요 (終)

來賓側 成松錄(京城都計研究會幹事兼府會議員) 室田重德(漢江公普校長) 殷亨柱(西氷庫普校) 尹命守(西氷庫普校訓導) 林翊相(漢南町副總代) 李時潤(東氷庫町副總代) 張英煥(普光町副總代) 黃昌淵(西氷庫駐在所長) 黃益煥(東亞永登浦支局長) 諸又環(朝鮮日日永登浦記者) 朴震澤(西氷庫町有志) 朴聖山(西氷庫敎會牧師) 同仁醫院 李醫師

主催側 成俊德 金鎣泰 金相哲 白承煥 李秉燕 閔仁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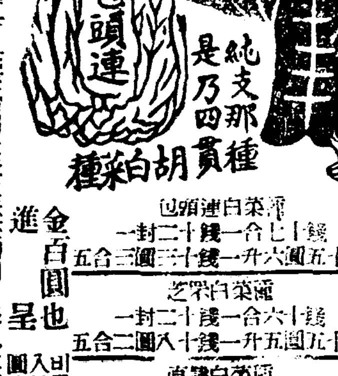
目鼻疾患
腦에直接
關係가잇는耳鼻의疾病은專門的에治療해야한다 神經衰弱、記憶力減退는八九十%까지鼻疾이原因이라하며 中耳炎은生命까지도빼앗는危險이잇다
本劑는獨逸ポリツエル博士가處方한藥으로서定評이잇다
定評잇는外用塗付劑
大木耳鼻藥
二十錢 三十錢 一圓五十錢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參謀本部陸地測量部發行
五万分一地圖販賣元
京城公平町六二(鐘路和信横) 東亞商會

大投賣斷行
高級網紗蚊帳 二人用 一、六〇 三人用 二、〇〇 四人用 二、五〇 六人用 三、二〇
生蚊帳 三人用 三、七〇 四人用 四、三〇 五人用 五、〇〇 六人用 六、〇〇
極上製造紗蚊帳 三人用 五、二〇 四人用 六、三〇 五人用 七、〇〇 六人用 八、〇〇
(詳細見本進呈)
元光商會 帽子部 蚊帳部
京城鍾路二丁目九(靑年會下) 振替京城一九九二番

結核에 わかもと

君不見山東胡白菜乎아
通信大賣出



純支那種 是乃四貫胡白菜種
注文方法 迅速酬應
包頭連白菜種 一封二十錢一合七十錢 五合三圓三十錢一升六圓五十錢
芝罘白菜種 一封二十錢一合六十錢 五合二圓八十錢一升五圓五十錢
直隷白菜種 一封二十錢一合六十錢 五合二圓八十錢一升五圓五十錢
山東白菜種 一封二十錢一合六十錢 五合二圓八十錢一升五圓五十錢
中國靑長大根 一封二十錢一合七十錢 五合三圓三十錢一升六圓五十錢
勿驚!
金百圓也 進呈
山東農園
電話分局八〇三番 振替京城二三三八二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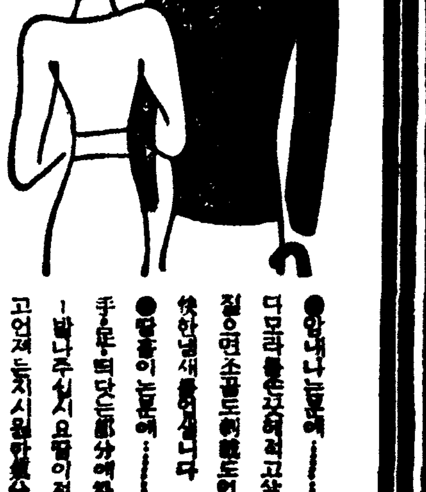
皮膚病!!
무좀、버짐、태독、부름에 쇠버짐、백납에
アスター

京畿道認可 仁川自働車講習所
學費低廉、內容充實
各科講習生募集
仁川府萬石町(東方西南便廣場) 電話七八五、七二九番

白破更紙 端切 賣物
新聞用紙卷取殘白紙로連질고 端切로小形印刷物에適合한更紙約二百貫 購買人士는本社用度係로

贈つて輝き 貰つて嬉しい このマーク
中元の御贈答用品は
運賃無料
鮮オール三中井所在地宛の
三中井
京城 大田 晉州 興南 大邱 光州 淸津 釜山 木浦 咸興 平壤 群山 元山

武田發賣品
わきがと汗止に
ダモラ



(小)三十五錢 (大)一圓二十錢

爲替管理强化 改正의主旨

施行細目과 注意事項

外國爲替管理에 關한 大藏省令의 改正에 對하야 大藏省에서는 그主旨와 施行細目을 說明하기 爲하야 去七日午前十一時 本省에 東京所在爲替銀行本支店의 代表者를 招致하야 上山爲替局長으로부터 改正省令을 說明하고 改正省令의 圓滑한 實施에 對하야 爲替銀行의 協力을 求하얏다 施行細目과 注意事項은 如左한데 가튼 內容의 改正이 朝鮮에서도 不日間 發表될것으로 이것을 紹介하야 參考에 供한다。

第一、昭和十二年 大藏省令 第一號關係 (一)月額三萬圓以下의 爲替及信用狀取引은 從來自由이엇스나 今後月額千圓을 超過하는 境遇는 許可를 要할것(二)改正省令施行前 締結한 月額三萬圓以下의 外國爲替豫約의 實行은 許可를 要치안는것(三)改正省令施行前 取得한 月額三萬圓以下의 信用狀에 基한 爲替取引은 許可를 要치안는것(四)改正省令施行의際 輸入濟 또는 外國으로부터 積出濟의 貨物 또는 本令施行後 一週間內에 外國으로부터 積出한 貨物에 關한 爲替手形의 決濟에 必要한 爲替取引은 月額三萬圓以下인限 許可를 要치안는것(五)改正省令施行後 비로서 許可申請하는者는 許可申請에 다음 事項을 添附할것 (가)昭和十一年中商品別代金決濟實績調査(나)今年一月以降各月의 商品別代金決濟實績調査(다)改正省令施行當時의 爲替豫約殘高及信用狀殘高(六)輸入貨物代金決濟에 關한 爲替及信用狀取引에 對하야 許可를 바든者가 貨物을 輸入한時는 第十條의 規定에 依한 輸入報告書를 提出할 必要가 잇스므로 注意할것

第二、昭和八年 大藏省令 第七號及 第八號關係 (一)爲替及信用狀取引 (1)株式配當金 그他의 收益의 送金及內外의 法令에 基한 義務履行으로서의 送金은 許可를 要하게되엇는데 正常한것은 이를 許可할 方針이다 (2)特許權 그他의 工業所有權의 取得 또는 使用에 伴한 送金은 特히 不必要한것을 除하고 許可할 方針이것 그리고 外國의 特許權 그他의 工業所有權에 關한 出願等의 手數料는 許可를 要치안는것 (3)外國旅行者의 旅費 또는 携帶金額은 爲替及信用狀의 兩者를 合하야 五千圓을 超過하는 時는 許可를 要하는것 (4)在外者에 對한 生活費及學費의 送金은 爲替及信用狀에 依한 送金이 一個年五千圓을 超過하는 時는 七月十五日以後 許可를 要하는것 (二)無爲替輸出 (1)無爲替輸出은 本內資産으로서 輸入貨物의 代金 그他의 目的에 充當하는 無爲替輸出은 七月十五日以後 許可를 要하는것 許可를 要치안는 無爲替輸出者는 今年七月二十五日以後 輸出申告 또는 郵便物의 發送에 關하고 모다 輸出申告 또는 郵便送付의際 또는 그後二週間內에 稅關 또는 郵便局에 提出할 必要가 잇슴으로 注意할것 報告書提出에 關한 手續의 詳細는 當局 또는 가장 가까운 稅關에 問合할것 (三)外國爲替銀行의 證明表付 外國爲替銀行은 그適法性의 證明을 要하게 되엇스므로 外國爲替銀行과 爲替及信用狀 取引을 하려는者는 許可證의 提示 그他의 方法에 依하야 그適法인 旨를 證明할것

世界經濟動向 今日休載

五個年計畫에伴해 産米增殖도復活

十三年度부터實現

米穀課立案中

朝鮮産米增殖計畫은 昭和四年부터 十二個年計畫으로 增産千五百萬石目標로 實施되어 百六十萬町步의 水田에 對하야 三十五萬町步의 土地改良을 行하고저하얏스나 同計畫은 計畫中間인 昭和九年에 中絶되고 土地改良事業과 如한 大規模가 小規模로 縮少되엇섯는데 農林局에서는 新産業五個年計畫의 實施에 伴하야 各種産業의 全面的五個年計畫에 倂行하야 새로이 産米增殖五個年計畫을 樹立하고 産米增殖에 拍車를 加키로되엇다 그리고 同計畫의 具體案에 就하야서는 目下米穀課에서 立案中인데 從來의 計畫을 그대로 進할지 或은 이것을 一部縮少하야 局部的增産을 進할지는 多少疑義가 잇는모양이나 何如間産業의 全面的增産計畫에 倂行하야 進할것이라는 見解下에 明十三年度에는 그實現을 보리라고 觀測된다한다

全朝鮮金融機關 逐月膨脹의一途

五月末預金七億、貸出十二億圓

全朝鮮金融機關(銀行、金組、信託、東拓、郵貯)의 五月末現在狀況은

▲預金 六億九千九百六十四萬四千圓으로서 比前月六百十萬九千圓增

▲貸出 十二億一千五百九十七萬二千圓으로서 比前月四百七十五萬八千圓의增

이는이제五月末各機關別內容을 示하면 如左하다。(單位千圓)

	預金	貸出
特銀	[illegible]	[illegible]
普通	[illegible]	[illegible]
貯銀	[illegible]	[illegible]
金組	[illegible]	[illegible]
信託	[illegible]	[illegible]
東拓	[illegible]	[illegible]
郵貯	[illegible]	—
合計	[illegible]	[illegible]

機關別實力對照!

即以上에 依하야보면 各機關別로 實力을 對照해보면 預金에잇서 特銀이 總額의七分之二이며 特銀과普通銀을 合한것이 總額의半以上으로서 依然銀行이란存在가 큰것을 알수잇스며 그다음은 金組가 普銀보다 少額이나마 多額인것은 金組勢力이 强大한것을 證한것이다 또그다음은 郵貯、貯銀、信託의順이며 東拓은 總額의百分一도못되며 貯銀의十分一이다 貸出에잇서서는 特銀만이 總額의半以上을 占하고잇고 普銀과合하면 總額의 三分二의多額이나 金組와普銀의比는 四對三으로 金組가 凌駕하고잇스며 東拓과普銀과는 一對二의比이고 信託과東拓도 一對二의比이며 貯銀은 總額의二分에 不過하다

金組의殖銀依存

鮮銀으로是正될機運

金融機構改善問題의 具體化機運에 伴하야 鮮、殖兩銀의業務分野確立은 不可避의問題인데 오래동안 懸案이던 金融組合聯合會의殖銀依存도 이와同時에 是正케되리라고 解釋된다 即金組聯合會의 資金放出과回收는 逐年그業務範圍의擴大에 依하야 手許資金의 收縮增減度가 大幅이되고 最近은 五千萬圓內外의 增減이잇는터인데 如斯한一時的增減이 激烈한 短期資金을 殖銀資金과 如한 長期資金으로써 함은 邪道이오 實際問題로서도 支障이잇슴으로 金組聯合會의資金은 鮮銀에關係케함이 妥當하는것으로 鮮銀의 中央銀行的金融統制力確立으로서도 常道라한다

小包郵便物取扱狀況

今朝鮮各郵便局所에서 最近一個月間에 取扱한 小包郵便物의 引受總數는 一二十三萬三千九百二十七個인요 配達總數는 三十四萬六千九百五十三個인데 前年同期의 取扱數에 比較하면 引受는 八分 配達은 七分의 各增加이엇다

中央無盡은 大阪東京式倂營

中央無盡의 創立에 依하야 同社는 既設合倂會社인 共濟、共立、興業 三無盡會社의 無盡契約 約七千萬圓을 引繼키로되엇는데 中央無盡으로서는 이와別個로 新無盡을 設定할터로 無盡의形式은 大阪式과東京式을 倂營키로 되엇다 一般庶民階級으로부터 가장 切望하는 小額無盡은 現在統制會社인 慶南無盡이 三百圓의無盡을 許可되어잇스나 이보다一步를進하야 二百圓의無盡設定도 研究中이다 小額無盡은 募集費其他의經費가 增大함으로 會社로서는 妙味가적음으로 이것의犧牲을補할 意味로 一萬圓程度의高額無盡도 設定方針이라한다 그리고 一萬圓高額無盡은 慶南에서 現在許可營業中이라한다

中央經濟會議 三地經濟摩擦

統制가目的?

中央經濟會議委員에 任命된 朝窒社長野口遵氏는 八日入京하야 如左히말하얏다 中央經濟會議의 目的이 어듸잇느냐는것은 政府로부터 아모것도 듯지못하얏슴으로 알수업스나 要컨대 經濟의 三原則에 基한 日本內地、朝鮮、滿洲를 一體로한 經濟政策의 確立에 잇는것은 明白하고 具體的으로말하면 日本內地、朝鮮、滿洲의經濟的摩擦을 如何히 統制按配할가에 잇는것이다 從하야 經濟會議에서는 各其立場에 依하야 相當히 議論가나오겟는데 政府로서는 原案이잇슬것임으로 委員으로서는 이것을 檢討케될것이다 이와는 別個로 日本內地、朝鮮、滿洲의 經濟會議가 大連에서 開催된다는데 나도 出席케될것이다

江界水力

明春에着工

東拓系의 江界水力(出力二十二萬키로)은 今月中旬 總督府로부터 正式으로 認可될터인데 東拓에서는 新會社創立 發電工事 事業開始에 對하야 如左히말한다 正式認可指令에 接한後 新會社를 創立할터인데 資本金은 五千萬圓豫定이다 創立은 諸般協議도잇서서 가을로될터인데 東拓과森系의合作이라는 豫定計畫대로이다 다음으로 認可指令에 接하면 直時發電工事實測에 移하야 設計하고 工事認可를 申請할터인데 이런關係로 着工은 明年上期頃이되겟다 大體工費는 一키로約三百圓으로 約六十萬圓에 達하겟고 竣工은 滿二個年半은 最低限第一期計畫에 要함으로 昭和十五年이나 十六年이되겟다 右電力消化에 就하야서 東拓과 森系의化學工業計畫의 新會社는 電源關係도잇고 또工場建設은 電氣開發과는 달리서 新會社創立이 相當遲延될것이다

茂山輸送鐵道와 朝鐵側의希望

製鐵國策에 依한 茂山鐵鑛의開發에 伴한 輸送鐵道는 朝鮮鐵道의 咸北線을 利用하기로 大體內定되엇는데 朝鐵의 咸北線은 狹軌이므로 改良할 必要가잇서 約一千二百萬圓의改良을 要한다함으로 朝鮮鐵道로서는 私鐵補助法은續白頭의 相當額引上을 受하지안흐면 道路改良에는 着手할수 업다하야 根本方針決定을 기다리고잇다 即 廣軌改良에 伴한 補助는 私鐵補助法의 改正에 依하야 交付할수잇도록 政府도 立案中인模樣이다 萬若 이것이 實現되면 鑛石輸送計에 對한 運賃의 引上에 依하야 充分히 採算되도록 總督府와 三菱과 折衝할 方針이라한다

運輸計算增資?

非合同系의 鮮滿運輸計算株式會社는 現在資本金四十萬圓인데 小運送統制를앞두고 非合同立場을 有利히展開코저 增資를計畫中이든바 三十萬圓의增資를 內定하얏는데 七月中旬의 同社定時總會에 附議하리라한다

米棉作付段別 大增加發表

【華盛頓八日發同盟】米國農務省은 八日午前十一時에 七月一日調査의 一九三七ㅣ八年度米國棉花植付段別을 三千四百十九萬二千에ー카ー로 發表하얏다 이것을 去五月二十一日의 訂正發表 一九三六、七年度植付段別三千九十六萬에ー카ー에 比하면 三百二十三萬二千에ー카ー의 增加에 當하고 一九三三ー四年度의 四百二十四萬八千에ー카ー以來의 大段別이다

煙草賣渡高

專賣局六月分製造煙草賣渡高는 合計四百五十九萬三千四百四十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一割六分七厘의增이다

勞賃續昻騰

土木工事本格開始로

一月以來續騰

鮮銀調査=六月中의 京城勞銀指數를보면 指數(明治四十三年七月基準)는 一七九、六三〇포인트로서 前月에 比하야 七、一一〇포인트이나 前年同期二、三三七포인트 騰貴이오 工事의 一齊開始期에 入하야 現場關係의 勞銀이 上昇한 關係이다 即前月比騰貴는 木手、미장이、瓦職煉瓦職及宮工人夫로모다 工事現場의供給不足을 反映한것이다 勞銀指數의 今年에 入한後의 動向을보면 如左히 漸騰傾向이엇다

本年一月	一六六、八八
同 二月	一六八、三一
同 三月	一六九、一五
同 四月	一七一、九六
同 五月	一七二、五二
同 六月	一七九、六三

元着拂問題

圓滿解決困難

鮮滿運輸協議會에서는 過般運賃對策協議會에서 日本內地朝鮮間運賃元着拂現金主義를 決議하얏는데 이는要컨대 朝鮮側의一方的意思表示에 不過하고 日本內地荷主側은 京濱、阪神共히 着拂을固持하야 境遇에依하야서는 荷受拒絶의强硬意向까지 傳하야 兩者의對立主張이 끼어서 船會社側에서는 其立場이 弱하다한다 即船會社의立場은 元着拂의 運賃支拂者인지 關係가업고 運賃支拂이 可한 立場의 意味로말하면 現拂이 可한 立場이나 荷主間의 對立으로 妥協案發見이 困難하야 輸送協定의 根本에도 影響된다하야 念慮코잇다한다 目下 阪神、京濱의 兩輸送協會와도 讀取比率設定의 連絡會議를 開하고잇다 그席上에서도 問題가되어잇스나 어찌못하고잇다한다 結局 이問題는 日本內地 朝鮮荷主의 會見에 依하야 解決할수바게 업는데 感情問題가 잇스므로 總督府에서 仲치안흐면 解決이 困難하리라한다

經濟界消息

○北鮮製紙重役會 社長權太林業視察에 北鮮製紙重役藤原、舊藏、朴興植、淺野太三郎、朴榮喆四氏는 王子製紙의 招聘에 依하야 樺太의林業視察次 約一個月豫定으로 視察키로되어 十日午後四時十五分京城을 出發할터인데 朴榮喆氏는 九日先行하얏다고

○東銀重役會=東一銀行에서는 九日午前에 重役會를열고 總會日字를 廿七日午前十時로 決定하얏다고

寸鐵

○中樞院서 産米增殖計畫을 復活하리라고

○僞裝도조라만은 增收後에도 期待나맛지안홀지가 問題

○資金統制下의金利策 鮮銀支配下에두라는것은 當然한理論

○支配權도 問題려니와 普銀들을 鍛鍊하는 現金組의業務도 是正할必要가잇는것

○丸計는 增資計畫이라고

○增資가 統制對象이라고는 보이지안는데 무슨 妙策이잇는가?

今日財界 (九日)

◆米 (單位石)

	[illegible]	[illegible]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鮮三等米一石	[illegible]	[illegible]
京城一等白米	[illegible]	[illegible]
正粗(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一斤價三等	[illegible]	[illegible]
고무神戶現物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十株)

	[illegible]	[illegible]
朝取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綿絲	[illegible]	[illegible]
棉花	[illegible]	[illegible]
人絹	[illegible]	[illegible]
砂糖	[illegible]	[illegible]

今日의市勢 〔九日〕

株式 形勢觀望 揉合

前場保合 今曉北中事態의 惡化를 傳하였스나 그後兩軍撤退와 外交交涉開始의情報로 北中問題도 一段落을 짓게되어 아모 材料도업고 外電은 紐育株式이 二弗半高인 一〇九弗 스틸株의 高를 示現하고 米棉도 一圓十一錢高를 告하야 人氣를 强化하엿슬뿐이오 東新은 寄付만 少强하엿슬뿐이오 再次觀望의 態度로 當地도 比較的閑散裡에 揉合하야 結局保合裡에 大引되엿다

後場保合 後場은 鐘新三高 東新一高로 少堅裡에 寄付한後 賣買薄으로 閑散裡에 保合이엇다

市勢再次保合

月初에 鐘新三十餘圓 東新十圓高를 보엇스나 一押後에 再次 市勢는 相當한 押目도 보이지안코 寸强後에 다시 保合을 繼續하게 되엇는데 이는 勿論 金融緩和、海外市場의 好轉等으로 上放하기는 하엿스나 環境은 반듯이 單純한 樂觀만을 不許하고 內外의 複雜한 諸問題는 冷靜히 생각하면 多少 氣迷가 되지안는바도 아니며 特別議會는 漸次 接近되어오고 明年度豫算은 膨脹이 豫想되며 賀屋藏相의 方針도 好感되기는 하나 果然 이 以上의 增稅가 업시 膨脹豫算編成이 可能할것인가 疑問視되어 모든것을 公債에만 求할수업는 以上 어떠한 形式의 增稅가 나올것이라고 警戒하고 國際收支는 金現送方針으로 適合되어간다고하나 벌서 二億七千萬圓이 現送되고도 또 現送치안흐면 안될 事情에 잇스니 果然産金限度로서 爲替維持가 可能할는지 疑問視되는 點도 업지안타 爲替管理强化도 軍需品의 優先權을 認定하는 限 其他工業資料는 求得할길이 업서 도로혀 輸出不振을 誘致하지안흘가 念慮되고잇다。이런것은 지금에 始作된것이 아니로되 全然念慮가 解消된것이 아니므로 前進하다가도 反省하게되는것이 이때문이다。證券界의 今後 活躍은 期待는 되드라도 急進은업고 一高一低로 漸進할 것이라는 事情이 伏在하기때문이다

纖維株는 堅調

[illegible]

國債 海外不良 低落

【東京電話】海外의 日本債의 四分利物은 五錢乃至十錢低하고 五分利物은 佛貨債가 十錢下押하고 米貨債는 換率側면物로 六分半이 一圓五分半七十錢低를 示하야 全體的으로 低落되엇다

佛貨 一九六三〇

實物前場取引

▲日産新先限 六四、〇이엇다 ▲朝鮮新先限 三三、七 [illegible]

長期取引

今朝의 朝取長期取引은 [illegible]

期米 賣氣一巡 少强

前場反强 今朝는 年晴으로 阪地三十三圓四十錢인 三丁反高를 據하고 當은 一圓六十九錢인 六丁高 中은 二圓九十錢인 七丁高 先限은 三十一圓十九錢인 四丁高로 寄付한後 二節四十四錢인 四丁高를 비롯하야 節節一錢式의 昂騰을 告하는 자못 堅實한 步調로 七節五十錢의 高價임을 傳하야 結局反止五十二錢으로 보고 二十一錢에 止하다

後場揉合 後場은 三十一圓十八錢인 三丁低로 始場한後 二節十七錢으로 三四節나시 十八錢인 同價로 底拔的保合이나 强合이엇다

賣過의 反動高

日本內地及 朝鮮의 好順氣를 機로하여 賣物이 續出하야 新甫發會後 阪地는 六十丁內外의 反落을 告하고 當地는 約八十丁의 反落으로 昨前場에는 阪地三圓二十錢高로 反落앞을보고 群衆側의 賣物이 驅逐하야 三十圓九十七錢인 最低價를 내이고 因而 [illegible]

市場六感

㊕(株) 再次保合이될듯한 場面이나 ▲이는 內外情勢의 複雜化로 因한 仕手의 傍觀에 基因하는바이니 말하자면 一高後의 一息 ▲低價는 좀더잇슬것으로 一般은 期待하는데 果然如何할지 ▲鐘新主力買方은 山一이라하는바 否定說도잇서 아직 眞相이 模糊 ▲東新은 오르지안는대신 底堅은 하나 오르다하드라도 大幅은 업스리란 人氣이니 注目거리 ▲中旬이 넘어스면 一高가 잇슬지모르나 特議도 兼하야 月末은 波瀾이 아닐가?

㊍(米)…쌀의 實際에 잇서서는 在米가 極度로 稀薄한즉 期近은 賣할수 없고 頭上의 天候는 順調를 觀測하니 先限은 찰아리 賣妙味가 不無 그러므로 中先의 傾向은 찰아리 當然 (鐘山)

風雲의中限戰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正米 奔騰 定期高로

東城奔騰 [illegible]

仁川昂騰 [illegible]

釜山續伸 [illegible]

大邱强調 [illegible]

群山少高 [illegible]

木浦釘着 [illegible]

海外經濟 八日

[illegible]

銀行券 八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所 手形交換·金利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阪神豆粕 豆粕油粕·麥粉 [illegible]

◆阪神豆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正租 [illegible]

本絹交織人絹

◆京城絹布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短期主要取組高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綿糸

◆大阪綿糸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人絹 [illegible]

生糸

◆橫濱生糸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

京城 盆 仁川 康益 證券

米 東 期 趙俊鎬取引店 仁川府本町三丁目 電話

株式 東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

金·銀·白金 京城 明治町 杉山商會